

# 價 值 論 과 恐 慌 論

林 元 澤\*

(目 次)	
I. 序說 : 對立되는 2種의 方法	1. 멜더스
II. 投下勞動價値論과 部分的 恐慌論	2. 시스몽디
1. 리카아도	IV. 近代景氣循環理論
2. 마르크스, 루간·바라노우스키, 카우츠키	1. 케인즈
III. 支配勞動價値論과 一般的 恐慌論	2. 해로드

## I. 序說 : 對立되는 2種의 方法

理論經濟學은, 그것이 立脚하고 있는 方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2個部類로 區分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因果的 說明에 立脚하고 있는 法則定立的·體系的 經濟學과 模型作성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프라그마티즘 내지 相對主義의 經濟學이다.

前者 즉 因果的 說明에 立脚하고 있는 法則定立的·體系的 經濟學에 있어서는 항상 體系의 出發點이 問題가 되는데, 그 出發點은 보통 價値論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 부하린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價値의 問題는 經濟學이 發生된 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經濟學의 基本問題에 속하고 있다. 其他 모든 問題, 이를테면 賃金, 資本, 地代, 資本蓄積, 大企業과 小企業과의 軋轢, 恐慌 等に 관한 問題는 直接·間接으로 이 基本問題에 歸着되게 된다.」<sup>(1)</sup>

이에 대해서 프라그마티즘·相對主義의 立場에 立脚하고 있는 理論經濟學은 因果法則의 定立과 因果的 說明을 한사코 拒否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代表的인 例로서 우리는 슌페터를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슌페터는 「因果關係」의 設定 대신에 「相互依存關係」의 設定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經濟學의 基礎에는 다음과 같은 認識이 介在하고 있다. 즉 우리들이 簡單하게 經濟的 諸量(ökonomische Quantitäten)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들 모든 諸量이, 그 가운데의 하나가 變動된다면 이에 따라서 其他 모든 것도 變動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1) N. Bucharin, *Die politische Ökonomie der Rentner*, 2 Aufl., 1926, S. 65.

하게 된다는 樣式으로 相互依存關係에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다。」<sup>(2)</sup>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相互依存關係」의 設定 즉 變數와 函數로써 構成되는 聯立方程式의 確立을 「說明」(Erklärung)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그 「說明」은 結局 「記述」(Beschreibung)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sup>(3)</sup> 그러면 슈페터에 있어 經濟法則은 어떠한 것으로 規定되고 있을까. 그에 의하면, 「記述」을 構成하는 諸命題가 「充分한 重要性」을 띠 때 그것은 經濟法則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라그마티즘·相對主義의 經濟學의 正體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슈페터의 見解를 들어 보기로 하자. 그는 우선 因果法則의 定立 즉 因果的 說明을 다음과 같이 公公然하게 排擊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從來의 모든 經濟學者는 그의 說明을……人間行動의 本質에 관한 어떠한 先驗的인 大前提로부터 시작해서, 이로부터 演繹的으로 그 方法에 有利한 主張을 獲得해 냈지만, 이것으로써는 어떠한 成果도 誘導될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現象은 因果法則에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經濟學의 領域에 있어서도 또한 精密한 法則이 可能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命題는 아무 것도 證明하지 못한다.」<sup>(4)</sup>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先驗的 大前提」란, 體系的 理論展開에 있어서의 알파 즉 價値論(交換法則에 관한 理論)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說明할 必要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슈페터는 價値論에 대해서는 어떠한 態度를 取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그는 價値論을 「價値假說」(Wert hypothese)로서 取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價値假說」에는 「費用原理」(投下勞動價値論)과 「價値原理」(限界効用價値論)의 2個가 있다고 하고, 이 2個種類的 價値論 가운데의 어느 것을 擇하느냐 하는 것은 原理의 「正當性」에 관한 問題가 아니라 그 「有用性」에 관한 問題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 原理間의 選擇은 우리들에게 그 正當性의 先驗的 論議에 관한 것이 아니다. 諸原理에 관해서 先驗的으로 論爭하는 것은 우리들의 原則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關心을 갖고 있는 것은 原理의 正當性(Richtigkeit)이 아니라 오직 그 有用性(Brauchbarkeit)에 지나지 않는다.」<sup>(5)</sup>

여기서 그가 프라그마티즘·相對主義의 立場을 取하고 있다는 것이 如實히 들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라그마티즘·相對主義의 立場이란, 理論이 「眞理냐 眞理가 아니냐」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그 理論이 「有用하냐 有用하지 않느냐」하는 것을 따지는 立場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有用性」의 觀點 위에서 形成된 理論을 「模型」(model)이라고 부를

(2) J. Schumpeter, *Das Wesen und der Hauptinhalt der theoretischen Nationalökonomie*, 2. Aufl., 1970, S. 28.

(3) *Ibid.*, S. 29.

(4) *Ibid.*, S. xii.

(5) *Ibid.*, S. 57.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模型」은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고 하나의 「手段」에 지나지 않는다는 特色을 갖고 있다. 막스·베버의 「理想型」(Idealtypus)이라는 것도, 「模型으로서의 理論」을 浮刻시켜 놓은 것에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目標(Ziel)로서가 아니라 手段(Mittel)으로서의 抽象的 理想型的 構成이 생각되는 것이다.」<sup>(6)</sup> 「規則性的의 把握은 認識의 目標가 아니라 그 手段이다.」<sup>(7)</sup>

이와 같이 理論을 「模型」으로 看做하고 理論展開를 「模型作成」(model building)으로 생각하는 프라그마티즘·相對主義의 立場으로부터는, 또 당연히, 理論의 客觀的 普遍妥當性이 否定되고 理論의 「恣意性」이 公公然히 容認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더 說明할 必要도 없다고 생각한다. 슈페터는 그의 所謂 「價値假說」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價値原理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正確하게 말해 보기로 하자. 그것은 그 自體 非現實的이고 根本적으로 恣意的인 것이기는 하나, 그 構成에는 事實觀察이 誘因이 되고 있는 하나의 假說的 函數인 것이다.」<sup>(8)</sup> 이와 같이 프라그마티즘·相對主義의 立場 위에 立脚하면, 모든 理論이 「模型으로서의 理論」이 되는 동시에 「恣意的인 것」이 되고 따라서 A와 非A의 正反對의 理論이 同時에 成立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誤謬」라는 것이 根源적으로 存在하지 않게끔 되기 때문이다. 「法則은 어떠한 經濟的 事實의 一般化에 基礎를 두고 있는 하나의 假定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原理적으로 恣意的이다. 그러므로 그것과 正反對의 假定을 設定한다고 해도 無關하며, 그것을 誤謬라고 烙印하는 것은 잘못이다.」<sup>(9)</sup> 이렇게 프라그마티즘·相對主義는 A와 非A의 正反對의 理論이, 서로 다투지않고 平和共存할 수 있다는 意味에서 또 多元論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以上에서, 모든 理論經濟學은, 方法論上으로 볼 때에는, 因果的 說明에 立脚한 法則定立的·體系的 經濟學에 속하느냐 아니면 「恣意的인」 「模型作成」으로서의 理論經濟學에 속하느냐의 어느 한 가지에 속한다는 것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또 우리 自身은 後者が 아닌 前者의 類型의 經濟學을 支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두고자 하는 바이다. 이 論文의 內容이 그 理由를 說明하게 될줄 안다. 이 論文에서 筆者는 올바른 設定된 論點으로서의 價値論만이 올바른 오메가로서의 恐慌論을 誘導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證明해 보이려고 하는 바이다. 換言하면 支配勞動價値論으로부터서만 즉 資本主義的 不等價交

(6) Max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1922, S. 193.

(7) *Ibid.*, S. 177.

(8) J. Schumpeter, *a. a. O.*, S. 73.

(9) *Ibid.*, S. 74.

換理論으로부터서만 올바른 一般的 恐慌論이 誘導될 수 있고, 投下勞動價值論과 價值論을 排擊하는 立場으로부터는 올바른 恐慌論이 誘導될 수 없다는 것을 證明해 보이고자 하는 바이다.

맥크라켄도, 그의 著書『價值論과 景氣循環』에서, 위에서 言及한 우리의 企圖와 꼭 같은 企圖를 施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지난 20年間 景氣循環과 物價動向에 관해서 수 많은 書籍과 論文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見解는 極히 多岐의이며 또 여러 경우에는 直接的으로 相衝되는 것이 많았다. 이러한 狀況은 그들 理論의 大部分이 이들 現象이 應用經濟理論 特히 應用價值論의 特定問題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認識하지 못하고 物價動向과 景氣循環의 分析으로 막바로(directly) 들어가려고 하는 態度를 取하는 데에서 緣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景氣循環과 價值論과의 緊要한 聯關係를 表示해 보이고자 한다. 우리는 여기서 投下勞動價值論은 論理的으로 景氣循環을 說明해낼 수가 없다는 것을 主張하고자 하는 바이다. 投下勞動價值論은 二元的 價值論 또는 論理的 自家撞着에 빠지고 있거나, 아니면 長期趨勢를 說明하는 데 그칠 따름이다. 壘地利學派에 의해서 發展된 限界效用價值論의 先驅者인 멜더스는 支配勞動價值論을 主張했다. 이 멜더스의 支配勞動價值論이야말로 景氣循環理論의 論理上的 出發點(logical starting-point)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支配勞動價值論은 ① 短期的 要素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으며, ② 그 接近方法이 需要의 側面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支配勞動價值論으로부터 그는 購買能力은 갖고 있으나 購買意思가 없는 데에서 起因하는 自發的 購買失敗(voluntary failure of demand)에 의해서나 아니면 購買意思는 갖고 있으나 購買能力이 없는 데에서 起因하는 非自發的 購買失敗(involuntary failure of demand)에 의해서 恐慌이 發生된다는 理論을 誘導해내고 있다.」<sup>(10)</sup>

이와 같이 맥크라켄은, 價值論이 景氣循環理論의 基礎가 되고 있으며, 投下勞動價值論으로부터는 올바른 景氣循環理論이 誘導될 수가 없고 支配勞動價值論으로부터서만 올바른 景氣循環理論이 誘導될 수 있다는 우리의 見解와 꼭 같은 見解를 披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0) H.L. McCracken, *Value Theory and Business Cycle*, 1933, p. v-vi.

## II. 投下勞動價値論과 部分的 恐慌論

### 1. 리카아도

앞에서 우리는 價値論이 恐慌論의 基礎理論이 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 言及한 바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또 한가지 添加되어야 할 事項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價値論은 그대로 直接 恐慌論으로 展開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中間項으로서의 資本理論을 거쳐서만 恐慌論에 도달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恐慌은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밑에 있어서만 發生되는 現象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恐慌論은 올바른 價値論과 올바른 資本理論을 經由해서만 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念頭에 두고 앞으로 나가기로 하자.

그러면 順序에 따라서 投下勞動價値論과 部分的 恐慌論과의 關係에 관해서 陳述해 보기로 하자. 그런데 우리는 우선 恐慌論에 있어서의 問題點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잠시 言及해 보기로 하자. 資本主義의 發展은, 그것이 利潤極大化法則에 따라서 推進된다면, 適當 中斷없는 發展相을, 즉 直線的인 資本主義의 擴大再生産의 樣相을 提示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어떠한 一定期間을 두고 恐慌 즉 縮小再生産으로의 轉換을 겪으면서 치그자그型으로 發展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事實이다. 1825년부터 1920년까지 이러한 恐慌(擴大再生産 → 縮小再生産)은 12회 發生되고 있다는 것을 歷史는 提示하고 있다. 그런데 그 恐慌은 「部分的 過剩生産」의 樣態로서가 아니라 「一般的 過剩生産」의 樣態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特色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恐慌論의 課題는 必然的이고 週期的인 一般的 過剩生産을 어떻게 解明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歸着된다.

그러면 리카아도에 있어서의 投下勞動價値論과 部分的 恐慌論과의 關係에 관해서 보기로 하자. 리카아도는 商品 속에 包含되고 있는 投下勞動量이 그 商品의 價格(嚴格히 말한다면 그 「相對價値」)을 決定한다는 投下勞動價値論을 主張하고 있다. 그 價格을 決定해주는 投下勞動量이 直接勞動과 間接勞動의 合計를 表示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必要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嚴密한 意味에 있어서의 投下勞動價値論은 社會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만 適用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이 이루어지고 있는 條件下에 있어서는 投下勞動價値論은 그대로 適用될 수 없고 그것이 修正된다는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다음에는 順序에 따라 우리는 리카아도가 어떠한 資本理論을 展開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端的으로 말한다면, 그의 資本

理論에는 後에 마르크스의 資本理論 즉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m}{A} \dots P \dots W' - G'$ 에 관한 理論으로 發展되는 萌芽의 要素와 後에 뵘·바베르크의 資本理論 즉 迂迴生産의 理論으로 發展되는 萌芽의 要素가 둘 다 包含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勞動力 또는 原材料 등의 「流動資本」과 道具, 機械, 建物 등의 「固定資本」, 그리고 그것을 購入하기 위한 「貨幣」等—— 이것은 곧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m}{A} \dots P \dots W' - G'$ 에 있어서의  $G-W < \frac{P^m}{A}$ 의 過程을 그가 把握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에 그가 「固定資本의 耐久性」을 問題삼아 「固定資本」을 使用해서 生産된 生産物의 價値에, 利潤이 「消費」乃至 「享樂」되지 않고 資本에 「附加」되는 代價로서, 「利潤이 留保되는 時間에 대한 正當한 報償(프리미엄)」이 附加되어야 한다는 理論은 後의 뵘·바베르크의 迂迴生産의 理論(資本理論)의 先行理論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sup>(11)</sup> 왜냐하면 뵘·바베르크에 있어서의 資本(「中間生産物」)은, 生産者가 그것을 다른 生産者로부터 購入해 들어 生産에 投入하는 要素로서가 아니라, 生産者가 消費財를 生産하기 前에 스스로 그것을 生産해서 生産에 投入하는 要素로서 取扱되고 있는데, 리카아도에 있어서의 「固定資本」도, 그와 마찬가지로, 生産者가 다른 生産者로부터 購入해 들어 生産에 投入하는 要素로서가 아니라, 生産者가 消費財를 生産하기 前에 스스로 生産해서 生産에 投入하는 要素로서 取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튼 「固定資本의 耐久力」을 媒介로 해서 그의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m}{A} \dots P \dots W' - G'$ 에 適用되는 投下勞動價値論은 첫번째로 修正을 받게 된다. (나중에 그것은 또 地代를 論하는 場所에서, 두번째로 修正을 받게 된다.)<sup>(12)</sup>

그러면 그에 있어서의 恐慌論은 어떻게 展開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우선 그는 세이의 販路法則을 받아 들인다는 것을 公公然하게 是認하고 있다. 「세이氏는, 需要는 生産에 의해서만 制限되므로, 1國에 있어 使用될 수 없는 資本은 전혀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을 充分히 說明하고 있다.」<sup>(13)</sup>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의, 즉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m}{A} \dots P \dots W' - G'$ 에 適用된 세이의 販路法則은 「生産物價値總額 ≡ 所得總額」 또는 「總供給額 ≡ 總需要額」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生産物價値總額 ≡ 所得總額」 또는 「總供給額 ≡ 總需要額」이라는 形態의 세이의 販路法則이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m}{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되기 위해서는, ① 우선 「投資需要」라는 概念이 成立

(11) D. Ricardo, *Principle of Political Economy*, Everymans Library, p. 2-3.

(12) 穀物價格은 最大投下勞動量에 의해서 規制된다는 最大投下勞動價値論이 登場하고 있는데, 이 最大投下勞動價値論은 사실 投下勞動價値論이 아니라 支配勞動價値論이 되는 것이다.

(13) *Ibid.*, p. 192.

되어 있어야 하고, ② 「貯蓄≒投資」가 成立되어 있어야 하며, ③ 「有効需要」의 概念이 반드시 登場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 3個條件이 모두 리카아도에 있어 實現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年年에 100,000파운드의 所得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 10,000파운드가 주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金庫에 넣어두지 않을고, 그는 10,000파운드만큼 그 支出을 增加시키든가, 그것을 自己自身이 生産的으로 使用하든가 또는 生産的 目的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게 될 것이다.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需要의 方向은 비록 다르다고 하더라도, 需要는 增加되게 될 것이다. 만약 그가 支出을 增加시킨다면, 그 有効需要는 建物, 家具 또는 享樂品으로 向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가 10,000파운드를 生産的으로 使用할 때에는 그 有効需要는 새로 雇傭된 勞動者를 일할 수 있게 하는 食料品과 衣服 그리고 原材料로 向하게 될 것이나, 그것도 需要입에 틀림이 없다.」(14) 위의 引用文章을 볼 것 같으면, 上記 3個條件이 리카아도에 있어 완전히 充足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所得 100,000파운드, 貯蓄 10,000파운드라고 할 때에 그 貯蓄 10,000파운드는 ① 消費需要 ② 投資需要 ③ 貸付로 向하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으며,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그것은 「有効需要의 增加」의 形態로 나타나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리하여 리카아도는,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가 推進되고 있을 때에는 「生産物價値總額≒所得總額」 또는 「總供給額≒總需要額」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되는 「生産物價値總額≒所得總額」 또는 「總供給額≒總需要額」을 그는 세이의 販路法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生産物價値總額≒所得總額」 「總供給額≒總需要額」이 成立된다는 것은 또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곧 部分的 過剩生産이 成立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意味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總生産物이 生産財와 消費財의 2個部類로 形成되어 있다고 한다면, 「生産物價値總額≒所得總額」 「總供給額≒總需要額」이 成立되어 있다고 할 경우, 만약 消費財의 供給額이 消費財의 需要額보다 크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生産財의 供給額은 生産財의 需要額보다 작지 않으면 안되며 消費財와 生産財의 同時的 過剩生産現象이 成立될 수 없게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究明해야 할 事項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되는 이러한 部分的 過剩生産에 관한 理論, 換言하면 「生産物價値總額≒所得總額」 또는 「總供給額≒總需要額」에 관한 理論이 어떻게 不可分離的으로 投下勞動價値論

(14) *Ibid.*, p. 193.

과 結合되고 있는가 하는 바로 그 問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 다음과 같이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m}{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되는  $G \equiv E \equiv G'$  ( $E$ 는 有效需要를 表示하고 있으며  $E = \text{消費需要} + \text{總投資需要}$ 라고 함)가 어떻게 投下勞動價值論과 不可分離的으로 結合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究明하는 것과 完全히 一致된다. 왜냐하면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m}{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生産物 價值總額」 「總供給額」은  $G'$ , 「所得總額」은  $G$ , 「總需要額」은  $E$ 가 各各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m}{A} \dots P \dots W' - G'$ 에 適用된 세이의 販路法則은  $G \equiv E \equiv G'$ 으로서 表示될 수 있게 되며, 앞으로 우리가 遂行해야 할 課題는 이  $G \equiv E \equiv G'$ 이 어떻게 投下勞動價值論과 不可分離的으로 聯結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究明하는 것이다.

投下勞動價值論에 立脚하는 한 商品價格 속에 包含되고 있는 利潤도 어떠한 形態에 있어서든간에 반드시 投下勞動量에 의해서 說明을 해야 한다는 어려운 課題로부터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은 더 말할 必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리카아도는 投下勞動價值論에 立脚해서 어떻게 利潤을 說明하려고 하고 있었던가.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그것이 리카아도에 있어 明確한 形態로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의 『經濟學原理』에는 利潤에 관해서 한 章이 割當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第6章), 遺憾스럽게도 거기에 있어서는 利潤發生에 관한 言及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第1章에서 直接勞動과 間接勞動을 取扱하고 있는 場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海狸 및 사슴(鹿)을 잡는 데 必要한 모든 機具는 한 階級에 속하고 있으며, 이를 잡는 데 使用되는 勞動은 다른 階級에 의해서 提供되고 있다...同一의 價値를 하나 또는 其他의 事業에 提供하는 사람은, 取得한 生産物의 2分の 1, 4分の 1 또는 8分の 1을 獲得하고 殘餘는 賃金으로서 勞動을 提供한 사람에게 支拂되게 될 것이다.」<sup>(15)</sup> 이 引用文章을 보면, 商品의 價格(「相對價値」)은 資本 즉 間接勞動과 勞動者의 直接勞動의 2個部分으로 構成되고 있으며, 賃金は 勞動者의 直接勞動에 대한 代價이며, 利潤은 資本 즉 間接勞動에 대한 代價라고 暗黙裡에 規定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리카아도는, 다른 場所에서, 商品價格은 賃金과 利潤만에 의해서 構成되고 있다고 反復해서 主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見地에 立脚하면, 利潤은 賃金과, 그 性格上, 아무런 差異點도 있을 수가 없으며 둘다 커다란 範疇로서의 「費用」에 包含되고 있다는 結論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다. 投下勞動價值論에 立脚하는 한 利潤은 一種의 「費用」이 되고 만다는 데에 投下勞動價值論의

(15) *Ibid.*, pp. 13-14.



重大한 矛盾이 內包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리카아도의 경우에 있어, 間接勞動은 直接勞動과 꼭 같은 性質의 勞動費用이며, 따라서 利潤도 賃金과 꼭 같은 性質의 勞動費用에 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리카아도가 「 $V+M$ 의 도그마」를 支持하고 있으며, 또  $C$ 와  $M$ 이 同一視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더 말하지 않기로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利潤을 賃金과 같이 費用의 一種으로 보는 投下勞動價値論에 立脚한다면, 結局 「生産物價値總額 $\equiv$ 所得總額(利潤도 包含)」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G \equiv G'$ 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貯蓄 $\equiv$ 投資」와 有效需要의 概念만 添附한다면,  $G \equiv E \equiv G'$ 이 成立되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는 以上에서 우리가 말한 것을 리카아도의 文章에서 直接確認해 보기로 하자. 『原理』第3版「機械」를 論하고 있는 場所에서 리카아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資本家가 20,000파운드의 資本을 使用해서…… 生産을 하고 있다고 假定한다. 그리고 그 資本 가운데의 7,000파운드를 固定資本 즉 建物, 家具에 投下하며, 그리고 나머지 13,000파운드는 流動資本으로서 勞動의 維持에 使用한다고 假定한다. 또 利潤은 10 퍼센트라고 하고, 따라서 그 資本家の 資本은 每年 2,000파운드의 利潤을 發生시킨다고 假定한다. 每年 이 資本家は 13,000파운드의 價値를 갖는 食料品 및 必需品을 所有하고 操作을 개시해서, 그 全部를 1年間에 自己自身の 勞動者에게 同一金額의 貨幣에 대해서 販賣하고, 그리고 그는 同一期間內에 勞動者에게 同額의 貨幣를 賃金으로서 支拂한다. 이리하여 그 해(年)의 末에 그들은 15,000파운드의 價値를 갖는 食料品과 必需品을 自己所有로 回收하게 되고, 그 가운데의 2,000파운드는 自己自身이 消費한다.」<sup>(16)</sup>

여기서 리카아도는 다음과 같은 資本主義의 商品生産의 像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年初에 7,000파운드의 「固定資本」(建物, 機械等)과 13,000파운드의 貨幣와 역시 13,000파운드의 食料品과 必需品을 가지고 生産을 시작한다. 다음에 資本家가 그가 所有하고 있는 13,000파운드를 賃金으로 그가 雇傭하고 있는 勞動者에게 支給하면, 勞動者는 그가 받은 13,000파운드를 支給해서 資本家로부터 역시 13,000파운드의 價値를 갖고 있는 食料品과 必需品을 購入하고 그것을 1年間 消費하면서 年末까지 15,000파운드의 價値를 갖고 있는 食料品과 必需品을 生産해 낸다. 물론 그 15,000파운드의 食料品과 必需品은 資本家の 所有가 되는데, 그 가운데의 2,000파운드의 利潤에 該當하는 生産物은 資本家가 스스로 消費하고 나머지 13,000파운드의 食料品과 必需品은 그 다음해의 勞動者에게 販賣된다. 이러한 式의 資本主義의 商品生産의 像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勞動者가 直接勞動의

(16) *Ibid.*, p. 265.

代價로서 資本家로부터 받은 13,000파운드의 貨幣賃金으로 그 直接勞動이 生産해 낸 食料品과 必需品를 購買하게 되고, 資本家は 「固定資本」 즉 間接勞動의 代價로서 獲得한 2,000파운드의 利潤을 가지고 역시 2,000파운드의 間接勞動이 生産해 낸 食料品과 必需品를 購買한다는 것과 꼭 같은 內容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리카아도가 범하고 있는 「V+M의 誤謬」에 관해서 더 言及하지 않기로 한다.) 우리는 여기서 投下勞動價值論이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適用될 경우 商品價格 속에 包含되고 있는 利潤이 그 商品이 販賣되기 以前에, 벌써 資本家の 手중에 貨幣形態로 入手되고 있으며, 그 貨幣利潤이 그 貨幣利潤을 發生시켜 놓은 生産物을 購入해 들인다는 理論構成이 되고 있다는 것에 注意해야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 點이, 리카아도에 있어, 投下勞動價值論이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서의  $G \equiv E \equiv G'$ 을 誘導해 내고 그리고 또 部分的 恐慌論을 誘導해 내게 하는 核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서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G \equiv E \equiv G'$ 이 成立되고 部分的 過剩生産이 發生되면, 商品의 「自然價格」 (投下勞動量으로 表示된 商品價格)은 下落하게 되고, 資本은 其他 有利한 事業으로 移轉됨으로써 部分的 過剩生産은 解消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以上 우리는 리카아도에 있어서의 投下勞動價值論과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서의 部分的 恐慌論과의 不可分離의 關係에 관해서 보아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리카아도가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發生되는 部分的 過剩生産에 관해서 言及하고 있는 것을 보기로 하자. 리카아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生産物은 항상 生産物 또는 用役에 의해서 購買되게 되며, 貨幣는 單純한 交換媒介物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特定財貨가 너무도 많이 生産되어서 그에 投下되고 있는 資本을 回收할 수 없을 만큼 그 供給過剩이 市場에서 發生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財貨에 있어 供給過剩은 發生되지 않는다.」<sup>(17)</sup> 여기서 리카아도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는 「貨幣는 한 날 하나의 交換媒介物에 지나지 않으며 生産物을 購買하는 것은 生産物이다」라는 세이의 販路法則을 容認하는 것부터 出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세이의 販路法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 $xW - mG - yW'$ 은  $xW - mG - yW'$ 으로부터  $mG$ 를 除外한  $xW - yW'$ 과 兩立할 수 있다」는 內容을 갖고 있다고 規定을 해두기로 하자. 즉 1頭의 소(牛)를 販買해서 5만원의 貨幣를 獲得한 뒤에 그 5만원의 貨幣를 支拂해서 10卷의 책을 購入했다고 한다면(1頭의 소(牛) - 5만원 - 10卷의 책), 이것은 1頭의 소(牛)와 10卷의 책의

(17) *Ibid.*, p. 194.

物物交換(1頭의 소(牛) - 10卷의 책)이 成立된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이의 販路法則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貨幣가 단순한 交換媒介物로서의 機能 以外の 別個의 機能을 營爲하지 않고 있다는 前提 外에 또 하나 거기에 投下勞動價値論이 適用될 수 있다는 前提가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즉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生産物을 購買하는 것은 生産物이다」라는 세이의 販路法則은 投下勞動價値와 兩立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投下勞動價値論으로부터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生産物을 購買하는 것은 生産物이다」라는 세이의 販路法則이 誘導될 수가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런데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生産物을 購買하는 것은 生産物이다」라는 세이의 販路法則으로부터는 「總供給額≒總需要額」이 誘導될 수 있고 따라서 또 部分的 過剩生産이 誘導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以上 우리는, 리카아도에 있어,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m}{A} \dots P \dots W'-G'$ 에 있어서나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나, 「投下勞動價値論→總供給額≒總需要額→部分的 過剩生産」의 圖式이 成立되고 있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리카아도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m}{A} \dots P \dots W'-G'$ 에 관한 想定이, 나중에 빌·바베르크에 의해서 發展되는 또 하나의 리카아도의 資本理論에 관한 想定을 抑制하고, 不充分하나마 그런대로 恐慌論의 展開에 있어 그 中間項으로서의 役割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 있어 「有効需要」(effectual demand)<sup>(17)</sup> 또는 「財貨購買力」(power of purchasing commodities)<sup>(18)</sup>의 概念과 「貯蓄≒投資」에 관한 理論이  $G \equiv E$ 를 明示的으로 表示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2. 마르크스, 투간·바라노우스키, 카우츠키

다음에는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投下勞動價値論과 部分的 恐慌論의 關係를 보기로 하자. 우리는 그것을, 『資本論』 第2卷 第3篇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言及하기 前에, 마르크스의 投下勞動價値論이 어떻게 리카아도의 投下勞動價値論과 다르나 하는 것부터 보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 差異點을 剩餘價値解明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카아도에 있어서는  $C$ 와  $M$ 이 同一視됨으로써 「商品價値 =  $V + M(C)$ 」라고 되어 있었다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이미 앞에서 言及한 바 있다. 이 리카아도에 있어서의 脆弱點을 마르크스는 재빨리 洞察하고 剩餘價値는 間接勞動  $C$ 와 區別되어야 하며, 그것은 直接勞動이 創造해내는 「必要勞動」을 超過하는 「剩餘

(17) *Ibid.*, p. 193.

(18) *Ibid.*, p. 266.

勞動]에 該當된다는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商品價格=C+V+M」이라는 定式을 確立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리카아도가 解決해 내지 못한 課題를 解決해냈다는 點에서 確實히 進一步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投下勞動價值論의 前提위에 立脚하고 있는 한 그 剩餘價值라는 것도 投下勞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으며, 하나의 實體 또는 生産物에 다름이 없고, 結局 그것도 費用의 一種이 되고 있다는 點에 있어 리카아도의 경우와 아무런 差異點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剩餘價值論은 投下勞動價值에 立脚해서 利潤을 解明하는 데 있어서는 成功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전히 誤謬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一般的 恐慌論의 展開에 있어서는, 沮害要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마르크스에 있어, 投下勞動價值論·剩餘價值論이 어떻게 그의 一般的 恐慌論의 展開에 있어 沮害要因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換言하면 投下勞動價值論이 一般的 過剩生産을 說明해 낼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밝혀보기로 하자.

그는 다음과 같은 再生産表式을 提示하고 있다.

$$I. 4,000C+1,000V+1,000M=6,000(\text{生産手段})$$

$$II. 2,000C+500V+500M=3,000(\text{消費手段})$$

이 表式에서 提示되고 있는 數字는 마르크, 프랑, 파운드 등 價格을 表示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事實에 있어서는, 「價值」 즉 投下勞動量을 表示하고 있다고 보아야만 된다고 생각한다.<sup>(19)</sup> 單純再生産이 進行될 경우 上記數字는 어떻게 關聯지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究明하고 있다. 우선 그는 「去來를 媒介하는 貨幣流通을 考慮하지 않는다」는 前提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第II部門의 勞動者의 賃金 500V와 資本家の 剩餘價值 500M은, 둘다 消費手段에 支出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그 價値는 第II部門의 資本家の 手中에 있는 500V와 500M를 表示하고 있는 1,000의 價値가 있는 消費手段의 形態로 存在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第II部門 内部에서 第II部門의 生産物과 交換되게 된다.」 「第I部門의 1,000V+1,000M도 마찬가지로 第II部門의 生産物에 支出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이 生産物의 殘餘와 等額의 不變資本部分 2,000C와 交換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 대신 第II部門은 等額의 生産手段을, 第I部門의 1,000V+1,000M의 價値가 凝結되어 있는 第I部門의 生産物을 받게 된다.」 「아직 第I部門의 4,000C

(19) K. Marx, *Das Kapital*, II, S. 400.

가 남아 있다. …이 生産手段은 第I部門에 있어서만 使用될 수 있는 것이며, 第I部門의 消費된 不變資本의 補填에 使用되는 것으로, 따라서 第I部門의 個個의 資本家 사이의 相互交換에 의해서 處理된다.」<sup>(20)</sup>

여기서, 마르크스는, 『剩餘價値學說史』에서 排擊해마지 않고 있었던 세이의 販路法則<sup>(21)</sup>을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適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하여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을 物物交換  $W-W'$ 으로 還元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剩餘價値學說史』에서, 리카아도가 세이의 販路法則을 採擇했던 것을 그토록 詰難해마지 않았던 마르크스가, 어찌해서 그 理論體系의 核心部分을 形成하고 있는 再生産理論을 展開하는 過程에서는 스스로 세이의 販路法則을 採擇했어야만 되었을까. 그 理由를 筆者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려고 하는 바이다. 自己가 이미 展開해 놓은 投下勞動價値論과 剩餘價値論에 대한 再強調, 再確認이 여기서 나타나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또 다음과 같은 것을 意味하는 것이 되게 될 것이다. 投下勞動價値論은 先驗的으로 세이의 販路法則과 結付되어야 할 宿命에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價値法値」=「等價交換의 法則」은 物物交換  $W-W'$ 에 있어서만 그의 眞面目을 如實히 發揮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投下勞動價値論은, 마르크스의 意圖와는 別途로, 本質的으로 세이의 販路法則과 不可分離의 關係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가 資本主義的 單純再生産에 세이의 販路法則을 適用한 結果, 즉 資本主義的 單純再生産을 物物交換  $W-W'$ 으로 還元시켜 놓은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이 誘導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즉  $i$  期の 利潤  $1,000M, 500M$ 이  $i$  期の 生産物  $3,000$ 과 物物交換된다. 이것을

$$X_{1i} = U_{1i} + A_{1i} + B_i \quad (\text{生産手段})$$

$$X_{2i} = U_{2i} + A_{2i} + B_i \quad (\text{消費手段})$$

이라는 우리의 表式에 의해서 表現해 본다면,  $B_i$ 가  $X_i$ 의 購買力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불합리한 말이고 틀린 理論이라는 것을 우리는 強調하고 또 強調하려고 하는 바이다.  $i$  期の 利潤  $B_i$ 는  $i$  期の 生産物  $X_i$ 가 販賣된 然後에 入手되는 所得이므로  $B_i$ 는  $i+1$  期の 生産物  $X_{i+1}$ 을 購買할 수가 있어도  $i$  期の 生産物  $X_i$ 를 절대로 購買할

(20) *Ibid.*, SS. 400-401.

(21) 「리카아도가 採用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밑에게 보다 더 잘 어울리는 저 愚物인 세이의 見解, 즉 過剩生産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乃至는 市場의 一般의 財貨過多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見解는, 生産物은 生産物에 대해서 交換된다는 命題에 起因하고 있다.」(K. Marx, *Theorien über den Mehrwert*, 2 Teil, Verlag, 1959, S. 486.)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B_i$ 가  $X_i$ 에 대한 購買力으로 된다는 理論이 展開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와 같이 投下勞動價値論에 立脚해서 剩餘價値에 관한 理論을 展開해 놓은 體系가 不可避하게 取하지 않으면 안 될 理論的 節次라고 생각된다. 리카아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間接勞動으로서의  $B_i$ 가  $X_i$ 에 대한 購買力으로 된다는 理論的 節次가 取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알고 있다. (리카아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U=B$ 가 되고 있다.) 이것을 「貨幣資本」=「有効需要」=「貨幣購買力」 등의 概念으로 表示해 본다면  $G_i \equiv E_i \equiv G'_i$ 와 같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G_i \equiv E_i \equiv G'_i$ 에 관한 言及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리카아도는 하고 있지만, 참으로 奇怪하게도 마르크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리카아도에 있어서는 「有効需要」=「貨幣購買力」에 관한 想念이 表面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즉  $G \equiv E$ 에 관한 理論展開가 나타나고 있지만,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有効需要」=「貨幣購買力」에 관한 想念이, 즉  $G \equiv E$ 에 관한 理論展開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관한 理論을 展開하고 있으면서도 「有効需要」=「貨幣購買力」의 想念을 把握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納得이 안가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튼 上記 表式에서  $4,000+2,000=6,000$ 의 再投資需要와  $1,000+1,000+500+500=3,000$ 의 消費需要 즉 合計  $9,000$  ( $G_i$ )의 「有効需要」=「貨幣購買力」( $E_i$ )가 總生産物  $9,000$  ( $G'_i$ )에 向하게 된다는 理論이, 마르크스에 있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대신, 마르크스는, 上記 表式에 「貨幣流通」을 介시켜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第I部門에 있어 資本家は 勞動者에게 1,000파운드 즉 1,000V를 ...支拂한다. 勞動者는 이 1,000파운드를 가지고 第II部門의 資本家로부터 同價値의 消費手段을 購買하게 됨으로써 第II部門의 不變資本의 折半을 貨幣로 轉化시키게 된다. 第II部門의 資本家는 또 이 1,000파운드를 가지고 1,000의 價値가 있는 生産手段을 第I部門의 資本家로부터 購買하게 된다...이리하여 그들의 可變資本은 貨幣形態로서 그들에게 다시금 還流하게 된다.」(22)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第I部門의 可變資本 1000파운드(貨幣)의 流通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르크스가 貨幣의 機能을 세의 販路法則에 있어 貨幣가 營爲하는 機能 즉 交換媒介物로서의 機能으로서만 보고, 「貨幣資本=有効需要=貨幣購買力」의 機能으로서 보고 있지 않은 사실이다.

以上을 要約한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세의 販路法則을 適用시켜 놓았으며 따라서 貨幣도 단순한 交換媒介物로서만

(22) K. Marx, *Das Kapital*, II, S. 402.

取扱하고 있기 때문에, 「貨幣資本」=「有效需要」=「貨幣購買力」이 生産物로 向한다는 理論이, 즉  $G \equiv E \equiv G'$ 에 관한 理論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마르크스의 再生産理論에도 有效需要의 理論을 適用시킬 수가 있으며, 만약 그것을 適用시킬 경우에는  $G \equiv E \equiv G'$ 과 같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G \equiv E \equiv G'$ 이 成立된다면 部分的 過剩生産의 發生可能性이 成立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세이의 販路法則을 適用시켜 놓은 즉 價値表示로 된 單純再生産의 均衡條件  $C_2 = V_1 + M_2$ 를 提示하고 있는데, 이것을 「貨幣資本」=「有效需要」=「貨幣購買力」의 概念을 통해서 즉 有效需要의 理論을 통해서 翻譯한다면  $G \equiv E \equiv G'$ 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역시 마르크스식의 投下勞動價値論과 剩餘價値論을 取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투간·바라노우스키는 다음과 같이 均衡된 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에 관한 表式을 提示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3)

第 1 年

第 1 部門, 生産手段의 生産  $840p + 420s + 420r = 1,680$

第 2 部門, 勞動者消費財의 生産  $420p + 210s + 210r = 840$

第 3 部門, 資本家消費財의 生産  $180p + 90s + 90r = 360$

第 2 年

第 1 部門, 生産手段의 生産  $980p + 490s + 490r = 1,960$

第 2 部門, 勞動者消費財의 生産  $490p + 245s + 245r = 980$

第 3 部門, 資本家消費財의 生産  $210p + 105s + 105r = 420$

第 3 年

第 1 部門, 生産手段의 生産  $1,143\frac{1}{3}p + 571\frac{2}{3}s + 571\frac{2}{3}r = 2,286\frac{2}{3}$

第 2 部門, 勞動者消費財의 生産  $571\frac{2}{3}p + 285\frac{5}{6}s + 285\frac{5}{6}r = 1,143\frac{1}{3}$

第 3 部門, 資本家消費財의 生産  $245p + 122\frac{1}{3}s + 122\frac{1}{2}r = 490$

이 表式은 剩餘價値의 2分の 1이 蓄積되고 나머지는 資本家に 의해서 消費되어, 蓄積되는 剩餘價値는 2對 1의 比率로써 不變資本과 可變資本에 加算된다는 操作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第1年の 第1部門의 420 가운데에서 140은 不變資本에 加算되어서 980이 되고, 70은 可變資本에 加算되어서 490이 되며, 資本家 自體의 消費는 210으로 減少된다는 式으로 擴大再生産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表式에 있어서도 세이의 販路法則이 適用되고 있으며, 따라서  $B_{1t}$ ,  $B_{2t}$ 는  $X_{1t}$ ,  $X_{2t}$ 와 物

(23) 엠·ツガン巴拉ノウスキー著, 鍵本 博譯, 『英國恐慌史論』, 208-209面.

物交換된다는 式으로 理論이 展開되고 있다. 그리고 이 表式에다가 有效需要의 理論을 適用시켜 본다면, 이 表式도  $G \equiv E \equiv G'$ 와 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成立되고 있는 것도 「一般的 過剩生産」이 아니라 「部分的 過剩生産」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투간·바라노우스키가 이 表式을 통해서, 主張하고자 하는 것은, 「社會的 生産이 均衡있게 配分만 된다면, 消費가 아무리 減少되더라도 需要·供給間의 均衡은 維持될 수 있으며, 또 이로부터 資本主義經濟는 販路의 缺乏에 의해서 打撃을 받는 일은 絶대로 없다」<sup>(24)</sup>는 內容의 所謂 不比例說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위지는 이 不比例說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투간은, 마르크스가 提出했던 恐慌의 2個 說明을 둘 다 拒否했다. ① 恐慌은 利潤率低下의 傾向에 의해서 招來된다. ② 恐慌은 大衆의 過少消費에 의해서 發生된다는 2個이다. 이 가운데의 ①에 대해서는, 그는,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高度化가 마르크스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 利潤率低下를 招來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利潤率의 上昇을 가져오게 한다는 根據를 들어 이것을 拒否하고 말았다. 그리고 ②에 관해서는, 그는, 生産이 諸産業部門間에 있어 正確하게 比例를 維持하고 있는 동안은, 消費가 어떻게 되든 過剩生産 乃至 需要不足은 發生되지 않는다는 것을 綿密하게 論證함으로써, 이에 대해서 反論을 試圖하려고 했었다.」<sup>(25)</sup> 즉 마르크스의 恐慌論에는 ①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高度化에 의한 利潤率低下의 傾向에 의한 說明과, ② 過少消費說과, ③ 不比例說의 3種이 있는데 투간·바라노우스키는 이 가운데에서 不比例說을 支持하고 나머지 2種의 恐慌論을 排擊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투간·바라노우스키가 主張하고 있는 不比例說이 마르크스式的 投下勞動價值論과 剩餘價值論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에 部分的 恐慌論이 되고 있다는 것만을 指摘해 두기로 한다.

사실 투간·바라노우스키도, 自己의 恐慌論이 部分的 恐慌論이라는 것을 率直히 是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투간·바라노우스키는, 以上の 表式에서 表明되고 있는 部分的 過剩生産에 관한 說明으로부터 一般的 過剩生産에 관한 說明을 誘導해 내려고 奇異한 努力을 해보임으로써 우리를 唐惶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前述한 販路理論으로부터는, 《過剩生産은 部分的일 수밖에 없다》는 結論이 誘導되게 된다. 따라서 우리들은, 恐慌期間 그것이 어떻게 一般的 性格을 띄우게 되는가 하는 것을 說明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生産物의 需要가 生産에 의해서 決定된다면, 즉 供給의 增加가 需要의 增加와 同一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一般的 過剩生産이 可能하게 된다는 말인가.」 이와 같이 투간·바라노우스키

(24) 同上, 220面.

(25) P. Sweezy,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1942, p. 159.



는 「部分的 過剩生産」으로부터 「一般的 過剩生産」을 誘導해 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다음과 같은 理論展開를 함으로써 그것을 成就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一般的 過剩生産이라는 事實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資本主義經濟의 事情을 보다 原始的인 經濟制度의 事情과 比較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例로서 物物交換 즉 貨幣의 媒介가 없는 生産物과 生産物과의 交換을 들어 보기로 하자. 사람들이 直接的으로 衣服과 빵을 交換한다고 假定한다. 그릴 때 빵의 生産이 衣服의 生産과 比較해서 過大하다고 한다면, 衣服의 價格에 比한 빵의 價格이 下落하게 되고 빵의 價格에 比한 衣服의 價格은 上昇하게 될 것이다. ……이들 兩生産物의 一般的 過剩生産이 發生될 수 없는 것은 自明의 理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衣服의 價格에 比한 빵의 價格과 빵의 價格에 比한 衣服의 價格이 同時에 下落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過剩生産도 價格下落도 部分的일 수 밖에 없다.」 「지금 貨幣에 의한 交換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빵의 價格과 衣服의 價格이 共通名辭인 貨幣에 의해서 表現되게 된다고 想定하기로 한다. 빵의 生産이 衣服의 生産者의 慾望을 超過했다고 假定을 한다. 이때에는 빵의 貨幣價格이 下落하게 될 것이다. 이 下落은 빵生産者가 받는 貨幣總額의 減少를 가져올 만큼 클 수가 있을 것이다. 보다 많은 빵의 量에 대해서 빵生産者는 少額의 貨幣 밖에는 받지를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빵生産者의 購買手段은 減少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은 그 手段을 衣服의 購買에 充當하게 되므로, 그 結果 衣服의 貨幣需要의 減少와 價格下落이 發生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빵의 貨幣價格의 下落은 衣服의 貨幣價格의 下落을 가져오게 한다. 換言하면 生産物의 貨幣需要보다도 供給이 超過되며, 그 結果 價格의 一般의 下落이 惹起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市場에 있어서의 價格의 一般의 下落이야 말로 商品의 一般의 過剩生産의 顯示인 것이다.」<sup>(26)</sup>

즉 어떤 生産物이 過剩生産된다면 그 價格이 下落하게 되며 따라서 그 生産物의 生産者가 받는 貨幣額도 減少되게 되며, 그리고 그 減少된 貨幣額을 가지고 다른 生産物을 購買하게 되므로, 그 生産物의 價格도 下落하게 됨으로써 價格의 一般의 下落 즉 一般的 恐慌現象을 顯出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一般的 過剩生産의 原因은 部分的 過剩生産이며, 社會的 勞動의 配分에 있어서의 均衡의 缺如이다.」 「한 商品의 生産이 消費의 慾望을 超過한다면 그 結果 그 貨幣價格이 下落하게 된다. 그런데 各種生産物의 貨幣價格 사이에는 聯關이 있으므로 이 價格下落은 또 다른 商品들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이리하여 一般的 過剩生産은 貨幣의 交換의 條件에 있어서의 部分的 過剩生産의

(26) 同上.

顯示이며, 社會的 勞動의 配分에 있어서의 均衡의 缺如의 顯示이다.」<sup>(27)</sup>

그런데 이와 같은 투간·바라노우스키의 部分的 過剩生産이 一般的 過剩生産으로 轉換된다는 理論은, 物物交換  $W-W'$ 에 있어 成立될 수 있는 部分的 過剩生産이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는 一般的 過剩生産으로 轉換된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는 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理論은 物物交換  $W-W'$ 과 單純商品生産  $W-G-W'$ 을 混同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뿐만 아니라 투간·바라노우스키의 部分的 過剩生産이 一般的 過剩生産으로 轉換된다는 理論이, 어떻게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서 成立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그에 의해서 證明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이의 販路法則을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適用시킨다면 불가불 不比例說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B_1, B_2$ 가  $X_1, X_2$ 에 대한 購買力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G \equiv E \equiv G'$ 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總供給額 ≡ 總需要額」이라는 前提下에서는, 어떤 商品의 供給額이 그에 대한 需要額(有效需要)보다 크다고 한다면, 반드시 其他의 商品의 供給額은 그에 대한 需要額(有效需要)보다 작아지게 됨으로써 部分的 過剩生産現象이 顯出되게끔 되는 것이다.

하여튼 우리는 以上에서 마르크스의 恐慌論의 1分肢의 擴大形態인 투간·바라노우스키의 不比例說도, 그가 立脚하고 있는 마르크스式的 投下勞動價值論·剩餘價值論 때문에 部分的 恐慌論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確認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마르크스의 恐慌論의 역시 1分肢인 過少消費論도 역시 部分的 恐慌論이 되고 있다는 것을 카우츠키의 表式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자.<sup>(28)</sup>

- A. I.  $4,000C + 1,000V + 1,000M = 6,000$ (生産手段)
- II.  $1,500C + 750V + 750M = 3,000$ (消費資料)
- B. I.  $4,400C + 1,100V + 1,100M = 6,600$ (生産手段)
- II.  $1,600C + 800V + 800M = 3,200$ (消費資料)
- C. I.  $4,840C + 1,210V + 1,210M = 7,260$ (生産手段)
- II.  $1,760C + 880V + 880M = 3,520$ (消費資料)
- D. I.  $5,324C + 1,331V + 1,331M = 7,986$ (生産手段)
- II.  $1,936C + 968V + 968M = 3,872$ (消費資料)
- E. I.  $5,856C + 1,464V + 1,464M = 8,784$ (生産手段)

(27) 同上, 248面.

(28) 카를·카운츠키, 오토·바우엘, 로저·룩셈부르크 共著, 松崎敏太郎 譯編, 『恐慌論』, 220-222面.

II.  $2,129C+1,065V+1,065M=4,249$ (消費資料)

F. I.  $6,442C+1,610V+1,610M=9,662$ (生産手段)

II.  $2,342C+1,172V+1,172M=4,686$ (消費資料)

上記 表式도 均衡擴大再生産過程을 表示하고 있다. 이 表式에 關係서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1年間 生産된 生産手段이 6,000으로부터 9,662로 순조롭게 增加되 기 위해서는, 消費가 3,000으로부터 4,686으로 增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賃金總額 은 이 期間에 있어 1,750으로부터 2,782로 增加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充分하 지가 않다. 蓄積, 節約에도 불구하고, 즉 消費의 節約에도 불구하고, 資本家の 消費도 同 時に 增加되어야 한다는 것이 擴大再生産의 均衡의 進行을 위해서 必要하다는 것이다.」<sup>(29)</sup> 즉 增加되어야 할 消費가, 特히 大幅 增加되어야 할 資本家の 消費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恐慌이 發生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過剩生産은 消費不足으로 因해서 發生되기 때 문에 이러한 恐慌論을 過少消費說이라고 부르고 있다.

	資本家の 消費額	前년에 대한 增加	勞動者の 消費額	前년에 대한 增加
A	1,100		1,750	
B	1,110	10	1,900	150
C	1,221	111	2,090	190
D	1,344	123	2,299	209
E	1,877	533	2,529	230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카우츠키의 過少消費說도 역시 部分的 過剩生産에 관한 理論이 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왜냐하면 上記 表式에 있어서도,  $B_{1t}$ ,  $B_{2t}$ 가  $X_{1t}$ ,  $X_{2t}$ 와 物物交換된다는 式으로 되고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 有効需要의 理論을 適用시킨다면 역시  $G \equiv E \equiv G'$  즉 「總供給額 ≡ 總需要額」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르크스의 恐慌論의 兩分岐인 不比例說과 過少消費說이 서로 어떠한 關係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자. 端的으로 말한다면 兩者는 서로 獨立되 고 있는 無關聯한 것이 아니고 過少消費說도 不比例說에 包含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擴大再生産의 均衡條件  $V_1 + MK_1 + MV_1 = C_2 + MC_2$  ( $MK$ 는 資本家の 消費로 向하는 剩餘價値의 部分,  $MC$ ,  $MV$ 는 不變資本과 可變資本의 蓄積部分, 添字는 生産部門을 表示) 에서 資本家の 消費가 不足하다는 것은 消費手段의 過剩生産을 意味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에 關係서 스위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恐慌의 原因으로서 過少消費와 不比例를

(29) 同上, 222-223面.

對立的으로取扱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투간·바라노우스키는 이 兩者를 對立的으로取扱함으로써 本來의 爭點을 混同시켜 놓았을 따름이다. 왜냐하면 過少消費는 不比例의 하나의 特殊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0)</sup>

以上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마르크스의 投下勞動價値論·剩餘價値論으로 부터는  $B_i$ 와  $X_i$ 가 物物交換된다는 不比例說 또는 過少消費說이 誘導되는데, 이것을 有效需要의 理論으로 翻譯해 본다면  $G \equiv E \equiv G'$ 이 되며,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것은 部分的 恐慌論이 된다는 것이다.

### III. 支配勞動價値論과 一般的 恐慌論

#### 1. 맬더스

맬더스는 리카아도의 投下勞動價値論에 立脚하고 있는 部分的 恐慌論에 對立되는 支配勞動價値論에 立脚한 一般的 恐慌論을 다음과 같이 展開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어떤 極히 有能한 著者들은, 特定財貨의 過剩生産은 있을 수 있지만, 財貨의 一般的 過剩生産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財貨는 財貨에 대해서 交換되고 있기 때문에 반은 나머지 반은 市場을 提供하게 되고, 그리고 生産은 이와 같이 需要의 唯一의 源泉이기 때문에 한 財貨의 供給過剩은 단순히 다른 財貨의 供給의 不足을 證明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一般的 過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 問題에 관한 그들의 見解인 것 같다. 세이氏는, 그의 有名한 著書에서, 한 財貨의 消費는 그 財貨를 市場으로부터 빼냄으로써 需要를 減少시키며, 그리고 한 財貨의 生産은 需要를 比例적으로 增大시킨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適用되고 있는 이 學說은, 전혀 根據가 없으며 그리고 供給과 需要를 調節하는 大原理에 완전히 矛盾되고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 財貨는 財貨에 대해서 交換된다는 것은 결코 眞理가 아니다. 莫大한 數量的 財貨는 生産의 勞動 또는 個人的 奉仕와 直接的으로 交換된다. 그리고 過剩生産 때문에 이 數量的 財貨가 그것과 交換될 勞動과 比較해서 價値가 下落될 수 있다는 것은 過剩生産 때문에 어떤 한 財貨가 勞動 또는 貨幣와 比較해서 價値가 下落되는 것과 꼭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以前에는 個人的 奉仕에 從事하고 있던 사람들이 資本蓄積에 의해서 生産의 勞動者로 轉換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數量的 財貨가 市場으로 쏟아져 나올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그러나 勞動者의 數는 全體로서 볼 때에는 同一하며, 또 地主와 資本家의 消費를 위해서 購買하려고 하는 能力과

(30) P. Sweezy, *op. cit.*, pp. 183-184.

意思是 假定에 따라서 減少되고 있으므로, 利潤을 引下시키고 當分간 그 以上の 生産을 할 수 없도록, 財貨는 勞動과 比較해서 그 價値가 必然的으로 下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過剩生産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過剩生産(glut)은 一般的(general)인 것이며 部分的(partial)인 것이 아닌 것이다.」<sup>(31)</sup>

以上 맬더스의 긴 文章을 引用했지만, 여기서 그는 세이의 販路法則과 그 위에 立脚하고 있는 리카아도의 部分的 恐慌論을 排擊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自己의 支配勞動價値論과 그로부터 誘導되고 있는 一般的 恐慌論을 展開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는 아갓게도 投下勞動價値論과 세이의 販路法則과의 癒着性에 관해서는 言及하고 있지 않으나 그것 때문에 그를 疇잡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가 當時 세이, 리카아도, 제임스·밀, 等이 「貨幣에게 너무도 重要性을 賦與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理論展開에서 貨幣를 逐出해 버린 것」<sup>(32)</sup>을 詰難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관해서도 올바른 把握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一般的 過剩生産에 관한 理論이 展開되는 過程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는 다음과 같이 一般的 恐慌論을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  $G_i$ (이 속에는 利潤  $B_i$ 와 再投資需要  $U_i$ 가 包含되지 않고 前拂賃金  $A_i$ 만이 包含되고 있음)가 有效需要=貨幣購買力 ( $E$ )가 되어서 總供給額  $G'$ 으로 向하게 되므로, 그럴 때에는 반드시  $G' > E(C_i)$ 가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總供給額은 總需要額(賃金總額)보다도 利潤額만큼 항상 큰 것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再投資需要와 原料費는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資本家의 利潤은 生産物을 需要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적어도, 「生産物을 購買하는 것은 勞動이다」라는 맬더스의 命題에 있어서는, 資本家의 利潤은 生産物에 대한 購買力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왜 맬더스가 그와 같은 理論을 展開하고 있는가 하면, 利潤은 販賣에 의해서 비로소 獲得될 수가 있으므로 利潤은 購買力化할 수가 없다는 支配勞動價値論·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理論에 依據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投下勞動價値論에 立脚하면, 利潤은 實物形態(「間接勞動」 또는 「剩餘勞動」)로서 生産過程에서 生産되고 있으므로 販賣가 되기 전에 벌써 存在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 ( $B_{1t}, B_{2t}$ )은  $X_{1t}, X_{2t}$ 과 物物交換될 수가 있다는 理論展開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支配勞動價値論에 立脚하면, 利潤은 販賣過程에서 비로소 貨幣形態로서 入手될 수 있으므로,  $B_{1t}, B_{2t}$ 는  $X_{1t}, X_{2t}$ 가 販賣된 後에 入手될 수 있고  $B_{1t}, B_{2t}$ 는  $X_{1t}, X_{2t}$ 를 購買할 수가 없으며  $X_{1t}, X_{2t}$ 를 購買할 수 있는 利潤은, 投下勞動

(31) T.R. Malthu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2nd ed., 1836, pp. 315-316.

(32) *Ibid.*, p. 324 footnote.

價値論에서 말하고 있는  $B_{1t}$ ,  $B_{2t}$ 가 아니라 前期의 利潤  $B_{1t-1}$ ,  $B_{2t-1}$ 이 된다는 支配勞動價値論이 되는 것이다. 맬더스는 這問의 事情을 완전히 把握하지 못하고, 利潤購買力을 처음부터 除外하고 말았지만, 물론 이것을 가지고 맬더스를 非難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支配勞動價値論·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理論에 立脚해서, 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이 進行될 때 어떻게 必然的으로 一般的 過剩生産이 發生되는가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表式에 의해서 밝혀 놓은 바가 있다. (但  $I'$ 은 總投資를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

$$(X_{1t} + X_{2t}) - (I'_{1t} + C_{1t}) = S - I_t + \Delta B$$

上記 表式은 맬더스의 支配勞動價値論과 一般的 恐慌論을 補完해서(나중에 보는 바와 같이, 거기다가 시스몽디의 時差理論을 加味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上記 表式에 있어서는, 맬더스에 있어서 分明하게 表示되고 있지 않았던 利潤이 어떻게 有効需要=貨幣購買力으로 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즉  $X_{1t}$ ,  $X_{2t}$ 에 대한 需要가 되는 것은  $B_{1t-1}$ ,  $B_{2t-1}$ 으로부터 나오는 投資需要와 消費需要라고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投下勞動價値論은  $X_{1t}$ ,  $X_{2t}$ 에 대한 需要가 되는 것은  $B_{1t}$ ,  $B_{2t}$ 로부터 나오는 投資需要와 消費需要라고 되어 있다. 바로 이 點이 部分的 恐慌論을 誘導해 내는가 또는 一般的 恐慌論을 誘導해 내는가 하는 分岐點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上記 表式에서  $\Delta B (= B_t - B_{t-1})$ 는 利潤增加額을 表示하고 있으므로 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 즉 利潤增加를 圖謀하는 한 陽의 값을 取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이 進行되는 동안 必然的인 一般的 過剩生産이 發生되게끔 되고 있다는 것을 上記 表式은 가르쳐 주고 있다. 價格이 下落됨으로써  $\Delta B = 0$ 이 될 때에는, 一般的 過剩生産은 發生되지 않지만, 그때에는 擴大再生産 대신에 실상에 있어서는 單純再生産이 進行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영든 우리는 이러한 利潤增加에 起因하는 一般的 過剩生産에 관한 理論을 支配勞動價値論·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理論에 立脚해서 不分明하게나마 맬더스는 成就해 놓았다고 評價해 두기로 한다.

上記 表式은,  $\Delta B > 0$ 가 될 경우, 즉 「利潤增加」가 있을 경우, 즉 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이 進行될 경우에는, 心然的으로 「不均衡」이 發生되고 또 그 「不均衡」은 「累積」된다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을 前提로 하는 한 「不均衡」은 완전히 「合法則的」이라고 해야만 될 것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그 「合法則的」인 「不均衡」이 또는 「不均衡의 累積」이 그대로 持續될 수 없다는 데에 問題가 있는 것이다. 그 「不均衡의 累積」은 價格下落·生産縮小로 解消됨으로써 「均衡」이 回復되는 것이

다(一般的 恐慌의 發生). 그러나 「均衡」은 그 自體 「反法則的」이며 ( $\Delta B=0$ 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合法則的」인 「不均衡」(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으로 轉換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不均衡(合法則的)—均衡(反法則的)—不均衡(合法則的)」 「擴大再生産—單純再生産—擴大再生産」의 景氣循環過程이 演出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資本主義的 循環運動의 起動力이 되고 있는 것은 「不均衡」이 「反法則的」이 아니라 「合法則的」이 되고 있으며 「均衡」이 「合法則的」이 아니라 「反法則的」이 되고 있는 데에 起因하고 있으며, 또 이것은 窮極的으로, 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이 行해지고 있다는 데에 起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음에 一般的 過剩生産發生의 또 하나의 原因으로서  $S>I$  즉 「過剩貯蓄」이 있다는 것을 上記 表式에 의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過剩貯蓄」에 起因하는 一般的 過剩生産發生에 관해서도 맬더스는 不分明하게나마 言及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두기로 하자. 왜냐하면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貯蓄의 原理가 過度로 推進되다면 往往 生産誘因을 破壞하게 된다는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 만약 生産이 消費以上으로 크게 增加하게 된다면 主要購買手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有効需要가 缺乏되는 現象을 나타내게 하므로 生産하려고 하는 誘因을 없앨 것이다……. 結局 生産力과 消費하려고 하는 意思를 둘 다 考慮한 다음에 富의 增加에 대한 刺戟이 最大가 되는 中間點 (intermediate point)을 摸索하는 것이 좋다.」<sup>(33)</sup> 上記 맬더스의 文章에 나타난 「生産力」이라는 概念은 「貯蓄」의 概念과 同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上記 文章은  $S>I$  즉 「過剩貯蓄」이 一般的 過剩生産의 原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參考삼아 한마디 해 두고자 하는 것은, 리카아도는 貯蓄이 「投資需要」로 된다는 것을 明示的으로 表示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맬더스는, 그 리카아도의 긴 文章을 引用해 놓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反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리카아도의 第3의 極히 重大한, 그리고 세가지 誤謬 가운데에서 가장 重要한 誤謬는, 蓄積은 需要를 保證한다는 것, 즉 貯蓄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使用되는 勞動者의 消費는 계속 生産物을 增加시키는 것을 刺戟하는 財貨에 대한 有効需要를 創造한다는 것을 假定한 데 있다.」<sup>(34)</sup> 이리하여 맬더스는 貯蓄이 「投資需要」로 된다는 것을 排擊하고 대신 「投資生産力」으로 된다는 것은 認定하고 있다. (도마의 所謂 「投資의 生産力效果」란 概念은 이미 맬더스에 의해서 把握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貯蓄 즉 「生産力」이 커지면 커질수록 總供給額과 總需要額의

(33) *Ibid.*, p. 7.

(34) *Ibid.*, p. 422.

不均衡한 助長한다는 結論이 誘導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도, 맬더스에 있어서의 「過剩貯蓄」을 「過少消費」에 對應되는 概念으로서가 아니고 「過少投資」에 對應되는 概念으로서 解釋한다면 즉 上記 表式에 있어서의  $S > I$ 의 現象을 이와 같이 解釋한다고 한다면, 맬더스는 一般的 過剩生産의 이 側面에 관해서도 不分明하게나마 把握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음에 맬더스의 一般的 過剩生産의 解消策에 관한 見解를 보기로 하자. 한마디로 그것은 어떻게 「過剩貯蓄」을 또는 어떻게 「過少消費」를 (「過少投資」가 아니라) 解消하여 資本主義的 擴大再生産을 維持시키느냐 하는 雄大하고 包括적인 構想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生産力を 發展시키는 3大要因으로서 資本蓄積, 土壤의 肥沃度, 勞動을 節約할 수 있게 하는 發明 등을 指摘했으며, 그리고 生産力の 發展을 뒷받침할 有效需要의 繼續적인 增加를 指摘하고 있다. 그것을 그는 富의 繼續의 增大를 保證하기 위한 「生産력과 分配手段을 結合할 必要性」(necessity of a union of powers of production with the means of distribution)<sup>(35)</sup>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擴大再生産을 保證하는 最大의 誘因은 높은 市場價格 즉 交換價値의 增大와 그것을 保障하는 「좋은 分配」라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生産物의 增大와 價値의 增大는 같이 進行하게 된다. 生産物의 數量의 增大는 主로 生産力에 依存하고 있는 데 대해서, 生産物의 價値의 增大는 生産物의 分配에 依存하고 있다. 生産과 分配는 富의 2大要素(two grand elements of wealth)이며, 이 2大要素가 正當한 比例로써 結合된다면, 地上의 富와 人口를 얼마 안가서 地上의 可能資源의 最高限度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2大要素가 別個로 取扱되거나 또는 不正當한 比例로써 結合된다면, 數千年이 經過된 後에 있어서도 地球上에는 貧困과 過少人口가 支配하게 될 것이다.」<sup>(36)</sup> 그리고 그는 또 다음과 같은 드라마틱한 말도 하고 있다. 「純收入(net revenue) 보다 總收入(gross revenue)에 主로 留意하는 것은, 결코 熟練과 機械로부터 獲得할 수 있는 莫大한 利益을 過小評價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總生産物의 價値에 極히 正當한 重要性을 附與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단순히 純收入을 言及하는 데 그치는 國民의 富에 관한 說明은 결코 滿足한 것이 되지 못한다.」<sup>(37)</sup> 즉 「賃金を 많이 주기 때문에 利潤(「純收入」)이 적어진다고 떠들지 말아라. 그것이 結局 보다 큰 利益(「總收入」)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擴大再生産을 위한 「生産력과 分配手段의 結合方法」으로서, ① 「土地財産의 分

(35) *Ibid.*, p. 361.(36) *Ibid.*, p. 371.(37) *Ibid.*, p. 368.



割), ②「內國商業 및 對外貿易」, ③「非生産的 消費의 必要」等 3種類를 들고 있다. 물론 이 3種의 方法이 「生産物의 交換價値를 增大」시키며 또 過剩貯蓄 즉 過少消費도 解消시키게 된다는 것은 더 說明할 必要도 없을 것이다.

지금 많은 誤解를 惹起시켜 놓았으며 (地主階級을 擁護했다고 해서), 그리고 특히 마르크스에 의해서 猛烈한 攻撃을 받았던 ③「非生産的 消費」에 관해서 잠시 보고 넘어가기로 하자. 맬더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生産에 從事하고 있는 資本家들은, 그들의 利潤 즉 그들이 얻는 收入을 消費할 수 있는 能力을 확실히 갖고 있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利潤을 資本에 대한 追加分을 除外하고, 生産의 增大와 消費의 增大에 대해서 最善의 方法으로 消費하려고 한다면, 非生産的 消費者는 必要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現實의인 資本家들은 그러한 消費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生活의 重大目的은 財産을 貯蓄하려고 하는 것이다.」<sup>(38)</sup>  $A_{1t}$ ,  $A_{2t}$ , 가  $X_{1t}$ ,  $X_{2t}$ 에 대해서 全額 消費需要로 되고 있다는 것이 明白한 事實이라고 해 둔다면, 問題는 利潤  $B_{1t-1}$ ,  $B_{2t-1}$ 가 全額 消費需要 (여기서 잠시 「投資需要」는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利潤이 全額 消費需要로 된다면 過剩生産이 發生하지 않지만, 만약 利潤이 全額 消費需要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過剩生産이 發生되므로 따라서 그 나머지 未販賣生産物을 購買하기 위한 「非生産的 消費者」가 必要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의 不分明性이 있다. 消費需要로 되는 利潤이  $B_{1t}$ ,  $B_{2t}$ 인지  $B_{1t-1}$ ,  $B_{2t-1}$ 인지가 明示되고 있지를 알라는 것이다. 아마도 맬더스는  $B_{1t-1}$ ,  $B_{2t-1}$ 보다도  $B_{1t}$ ,  $B_{2t}$ 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利潤이 全額 消費需要로 된다면 一般的 過剩生産은 發生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投資需要」가 言及되고 있기는 하지만 「消費需要」와 같이 強調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맬더스의 恐慌論이 過少消費說이라고 불리우는 데에는 充分한 妥當性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問題삼지 않기로 하자. 다만 우리는 利潤貯蓄이 全額 消費需要로 되지 않는다고 한 맬더스의 立言만을 問題삼기로 하자.

그리하여 그가 말하고 있는 「非生産的 消費」라는 것은 利潤貯蓄을 消費需要로 돌리는 媒介項(로자·록셈부르크에 있어서의 「第3者」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非生産的 消費者」가운데에는 第3次 産業에 從事하는 「個人的 奉仕」 등이 包含되고 있으며, 또 地主도 包含되어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地代가 超過利潤이 轉形된 것이라고 한다면 地主는 準資本家階級이라고 할 수 있으며, 「非生産的 消費者階級」에 속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

(38) *Ibid.*, p. 399.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도 여기서 問題삼지 않기로 하자. 다만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맬더스가 地主階級の 利益을 위해서 穀物輸入을 反對하고 高穀價政策을 維持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다만 利潤貯蓄에 起因하는 一般的 過剩生産을 解消하기 위한 消費增加策의 一環으로서의 地主에 의한 支出增大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바로 그 事實이다. 그러므로 「맬더스理論은 當時의 英國의 狀態, 地主制度……의 辯護라는 그의 目的에 適合되고 있다」<sup>(39)</sup>는 마르크스의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라는 것은 더 말할 必要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맬더스 自身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리카아도는 그의 才能과 勤勞에 의해서 大土地所有者가 되었다.…… 地代의 커다란 受領者가 地代의 國民의 重要性을 이와 같이 過小評價하고, 일찌기 地代라는 것을 받아 본 일이 없으며 또 받으려고 期待도 하지 않고 있는 내가, 地代의 重要性을 過大評價하고 있다고 非難을 받고 있는 것은 참으로 奇妙한 일이다.」<sup>(40)</sup>

## 2. 시스몽디

以上에서 본 것을 要約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投下勞動價値論에 의하면,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今期の 利潤  $B_{1t}, B_{2t}$ 이 今期の 生産物  $X_{1t}, X_{2t}$ 에 대한 需要로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支配勞動價値論・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理論에 의하면, 前期의 利潤  $B_{1t-1}, B_{2t-1}$ 이 今期の 生産物  $X_{1t}, X_{2t}$ 에 대한 需要로 된다고 하고 있으며, 前者로부터는 「部分的 過剩生産」이 誘導되고 있는 데 대해서 後者로부터는 「一般的 過剩生産」이 誘導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一般的 過剩生産에 관한 說明 가운데에 「時差」( $B_{1t-1}, B_{2t-1}$ 가  $X_{1t}, X_{2t}$ 로 된다는)에 관한 事項이 挿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맬더스는 이 「時差」에 관해서 그렇게 積極的인 見解를 밝혀 놓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된다. 一般的 過剩生産을 發生시키는 原因으로서의 「時差」를 公式적으로 들고 나온 사람은 다름아닌 바로 시스몽디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우선 「今年的 生産=今年的 所得」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리카아도의 見解를 다음과 같이 排擊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이 빠져있는 誤謬는, 全的으로 틀린 原理 즉 年年의 生産은 所得과 同一하다고 보는 데에서 나온다.」<sup>(41)</sup> 「年所得과 年生産과의 混同은 科學을 두터운 베일로 싸버리는 結果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sup>(42)</sup> 이와 같이 그는 「今年的 生産

(39) R.L. Meek, *Marx and Engels on Malthus*, 1953, p. 121.

(40) T.R. Malthus, *op. cit.*, p. 217 footnote.

(41) シスモンヂ 著, 管問正朔 譯, 『經濟學新原理(上)』, 284面.

(42) 同上, 285面.

『今年的 所得』 따라서 『今年的 生産=今年的 需要』를 否定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表式에 의해서 表示해 보면,  $E_t = U_t + A_t + B_t$ 가  $X_t$ 에 대한 有効需要=貨幣購買力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今年的 總供給額에 대해서는 어느 해의 所得이 需要로 되느냐 하면 『前年の 所得』이 바로 그것이 된다는 것이다. 『今年的 生産物에 대해서 支拂되게 되는 것은 前年の 所得이다. ……無制限의 生産을 獎勵하는 사람들의 誤謬는, 그들이 過去の 所得과 將來의 所得을 混同하고 있는 데에 緣由한다.』<sup>(43)</sup> 이것을 우리의 表式에 의해서 表示해 보면,  $E_{t-1} = U_{t-1} + A_{t-1} + B_{t-1}$ 가  $X_t$ 에 대한 有効需要=貨幣購買力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場所에서, 그는 또, 今年的 生産物을 購買하고 있는 所得은 完全無缺한 前年の 所得이 아니라, 半은 前年の 所得 半은 今年的 所得으로서 構成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生産物을 購買하는 半의 前年の 所得이란 곧 다름 아닌 前년에 있어서의 利潤所得이며, 生産物을 購買하는 다른 半의 今年的 所得이란, 다름 아닌 바로 今年에 있어서의 賃金所得이라는 것이다, 『國民所得은, 하나는 過去の, 다른 하나는 現在의 두 가지의 量으로써 構成되어 있다는 것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그 하나인 富로부터의 利潤은, 現在 消費하고 있는 사람들의 手中에 있으며, 그것은 前년에 行해진 勞動의 成果이다. 다른 하나는 勞動者의 意思와 能力이며, 勞動할 수 있는 機會가 現在 있고 이 能力이 消費對象과 交換되게 된다면, 眞實의 富가 되는 것이다.』<sup>(44)</sup>

이 두가지 見解 즉 『今年的 生産力을 購買하는 것은 前年の 所得이다』라는 命題와 『今年的 生産物을 購買하는 것은 昨年の 利潤所得에서 나오는 需要와 그리고 今年的 賃金所得에서 나오는 需要이다』라는 命題가, 시스몽디에 있어, 同一命題를 形成하고 있는지 아니면 別個의 命題를 形成하고 있는지가 分明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 두고자 하는 바이다.

以上을 통해서 시스몽디는  $X_t$ 에 有効需要=貨幣購買力으로 되는 것은  $A_t, B_{t-1}$ 이라는 것을 확실히 主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시스몽디가 開拓해 놓은 이와 같은 時差理論은 그가 恐慌論에 대해서 寄與한 偉大한 貢獻 가운데의 하나로 看做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시스몽디는, 一般的 恐慌論의 展開에 있어, 맬더스가 成就하지 못했던 것을 補完해 놓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맬더스도 시스몽디의 時差理論에 대해서 물론 贊成하는 뜻을 表示하고 있다.)<sup>(45)</sup>

그런데 이 시스몽디의 時差理論에 관해서 스펜더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43) 同上. 125-126面.

(44) 同上, 116面.

(45) 『시스몽디는 最近의 著書에 있어 蓄積의 限界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은 그 해의 生産物 全體를 前年の 生産物 全體와 交換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事實이라면…』 (T.R. Malthus. *op. cit.*, p. 366.)

수가 있다. 「시스몽디의 分析의 明確한 特徵은 近代의 意味에 있어서의 明示的인 動態를 自己의 分析의 틀에 맞추고 있다는 點이다. 만약 一定의 生産過程으로부터 發生된 貨幣所得이, 항상 이 同一의 生産過程으로부터의 生産量을 위해서만 使用된다고 한다면, 社會의 購買力과 財貨 및 서비스의 生産量은 항상 對應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後者는 항상 生産費를 補償하는 價格에 의해서 賣買가 될 수 있다는 可能性이 成立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經濟過程이 다음과 같이 小期間으로 區別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任意의 期間  $t$ 의 貨幣所得이 生産過程으로부터 發生되어 그 生産量은  $t+1$ 의 期間에 利用되고 그리고 그  $t$ 期間의 所得은  $t-1$ 期間의 生産量을 위해서 使用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境遇, 所得과 生産量은 同一期間內에 있어 相互對應하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즉  $t$ 期間內에 供給되었던 生産量은  $t-1$ 期間內에 行해진 決議의 結果이기 때문이다. ……시스몽디의 偉大한 功績은, 그가 體系的으로 그리고 또 明示的으로 期間圖式을 使用했다는 것, 즉 그가 期間分析(period analysis)이라고 불리는 動學의 特殊方法을 맨 먼저 採用했다는 點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이것이 結果하는 分析上의 差異를 明確하게 認識할 수 있었으며, 또 經濟生活이 여러 가지 契機의 하나 하나와 結付되어 있으며, 또 그 各各의 將來도 決定한다는 事實로부터 發生되게 되는 攪亂과 不均衡을 明確하게 認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偉大한 分析의 功績은 그가 갖고 있는 唯一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sup>(46)</sup> 즉 리카아도와 세이에 있어서는,  $A_t, B_t$ 가  $X_t$ 에 대한 有效需要=貨幣購買力으로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시스몽디에 있어서는, 그 理論에 時差가 介入되고 있으므로,  $A_t, B_t$ 가  $X_{t-1}$ 에 대한 有效需要=貨幣購買力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물론 이 슈페터의 말은 틀린 말이며,  $X_{t-1}$ 에 대해서 有效需要=貨幣購買力이 되는 것은  $A_t, B_t$ 이 아니며  $A_{t-1}, B_{t-2}$ 이다. 그런데 슈페터가 왜 이러한 誤謬를 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슈페터의 價値論에 대한 無視 즉 價値論이 恐慌論의 基礎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無視가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誤謬를 범하게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推測한다.

다음에는 시스몽디에 있어서의 時差理論과 그의 價値論과의 關係를 살펴 보아야 되겠다. 그러나 시스몽디에 있어서는, 맬더스 또는 리카아도에 있어서와 같은 明示的인 價値論이 登場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政治經濟學에 있어서의 두 가지 種類의 價値 즉 內容的 價値와 關係的 價値를 區分해

(46) J. Schumpeter, *A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p. 496.

만 될 줄 생각한다. 前者는 生産에 의해서 規定되고, 後者는 競争에 의해서 規定되며, 前者는 生産된 물건과 그것을 成就시켜 놓은 勞動과의 關係이며, 後者는 만들어진 것과 그것을 必要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需要와의 關係이다.」<sup>(47)</sup> 여기서 시스몽디가 말하고 있는 「關係의 價値」는 다른아닌 限界効用 즉 限界需要價格을 表示하고 있다고 解釋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農耕者가 그 自身の 慾望을 充足시키고 나면, 그가 生産한 其他의 小麥은 그가 그것과 交換할 수 있는 價値 밖에 갖지 않는다. 그때부터 關係의 價値가……問題되는 것이다.…… 農耕者는 그 手中에 남은 15畝을 그가 그것을 生産하는 데 投下한 勞動日로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 生産物을 購買하는 勞動日의 價格으로써 販賣하게 된다.」<sup>(48)</sup> 이 文章에 있어서의 「關係의 價値」는 限界需要價格=支配勞動量을 表示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 같이 시스몽디는, 맬더스와는 달리, 支配勞動價値論과 一般的 恐慌論을 明示적으로 連結시키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一般的 過剩生産에 관한 理論을 展開하는 데에 있어, 맬더스는 支配勞動價値論을 展開하는 데 있어서는 積極의 態度를 取했으나 時差理論을 展開하는 데 있어서는 즉  $A_t, B_{t-1}$ 가  $X_t$ 에 대한 有效需要=貨幣購買力으로 된다는 理論을 展開하는 데에 있어서는 消極의 態度를 取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시스몽디는 支配勞動價値論을 展開하는 데 있어서는 消極의 態度를 取했으나 時差理論 즉  $A_t, B_{t-1}$ 가  $X_t$ 에 대한 貨幣購買力으로 된다는 理論을 展開하는 데에 있어서는 積極의 態度를 取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스몽디의 恐慌論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그에 의하면 恐慌은 所得이 生産物을 購買할 수 없을 때 發生된다는 것이다. 「生産은 그것이 所得과 交換될 수가 없게되자 停止하게 된다.」 이것을 그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1) 生産物을 購買하는 所得이 前년에 있어서의 利潤所得과 今年에 있어서의 賃金所得으로써 構成되고 있는 경우——「年所得의 總體는 年生産의 總體와 交換되게 된다. 이 交換에 의해서 各各(즉 前년에 있어서의 利潤所得과 今年에 있어서의 賃金所得)은, 그 消費에 寄與를 하고 再生産資本을 補填하고 새로운 生産을 위한 注文을 함으로써 生産을 推進시킨다. 만약 年所得이 年生産의 總體를 購買할 수가 없게 된다면, 그 生産物의 一部는 販賣할 수 없게 되고 生産者의 倉庫는 차게 되며 그들의 資本은 癱痺되고 그 生産은 停止하게 된다.」<sup>(49)</sup>

(47) シスモンヂ 著, 管間正朔 譯, 前掲書, 240面.

(48) 同上, 241面.

(49) 同上, 116面.

(2) 生産物을 購買하는 所得이 모두 前年の 所得일 경우——「今年的 生産物에 支拂하는 것은 前年の 所得이다. ……無制限의 生産을 獎勵하러 하는 사람들의 誤謬는 그들이 이 過去의 所得과 將來의 所得을 混同하는 데에서 緣由한다. 그들은 生産을 擴大하는 것은 富를 增大시키는 일이 되며, 그와 同時에 所得과 消費를 增加시키는 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需要가 있는 生産, 價格이 支拂되는 生産을 增大시키는 것만이 富를 增加시킬 수 있으며, 벌써 決定되어 있는 그 價格은 先行되고 있는 所得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窮極의으로는 그 해의 生産은 前年の 生産과 交換되었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生産이 서서히 增加된다면, 年年的 交換은 將來의 條件을 改善하면서 僅少한 損失 밖에는 發生시키지 않을 것이 틀림이 없다. 만약 그 損失이 僅少하고 잘 配分만 되고 있다면, 各自은 그 所得을 不平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損失에 잘 견디어 나가게 될 것이다. 國民의 經濟는 바로 여기에 있으며, 그 僅少한 損失의 累積이 資本과 公共의 富를 增大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生産과 先行된 生産과의 사이에 커다란 不均衡이 存在하고 있다고 한다면, 資本은 破壞되고 貧困이 發生되어 國民은 進歩가 아닌 退步를 하게 된다. 再生産으로부터 所得이 發生되는데, 所得이라는 것은 生産 그 自體가 아니고, 生産이 所得이라는 名稱을 얻어 所得으로서의 作用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生産이 實現된 然後의 일이며, 生産物이 그것과 交換으로 價値를 주는 消費者를 發見한 後에 限한 일이다. 生産者가 計算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며, 그가 完了된 交換으로부터 그의 資本全體를 控除하고 利潤을 計算해낸 뒤에 殘餘를 그 自身の 消費에 充當하고 그의 業務를 다시 開始하는 것은 이 때이다. 以上 말한 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結論이 나오게 된다. 生産과 所得과 消費사이의 相互關係에 있어서의 不一致는, 生産이, 보통보다 더 작은 所得을 주든가, 또는 資本의 一部가 消費元本이 되든가, 반대로 이 消費가 減少되더라도 새로운 再生産이 喚起되지 않든가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國民에게 有害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均衡이 破壞되면 國內에는 停滯가 發生된다.」<sup>(50)</sup>

그러나, 上記한 바와 같이, 시스템에 있어서의 一般的 恐慌論의 不分明性(즉  $A_t$ ,  $B_{t-1}$ 가  $X_t$ 에 대한 有効需要=貨幣購買力으로 되느냐 또는  $A_{t-1}$ ,  $B_t$ 가  $X_t$ 에 대한 有効需要=貨幣購買力으로 되느냐하는 것의)은 크게 問題될 만한 素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創始者이며 創始者에게 完全無缺을 要求하는 것은 그 自體가 잘못이기 때문이다.

(50) 同上, 125-127面.

#### IV. 近代景氣循環理論

##### 1. 케인즈

케인즈의 所得決定理論은 近代景氣循環理論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으며, 그에 대해서 하나의 基礎理論을 提供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케인즈는 세이의 販路法則에 對抗하는 有效需要의 原理라는 것을 確立해 놓았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近代景氣循環理論의 基礎理論이 되고 있는 이 有效需要의 原理에 관해서 考察해 보기로 하자. 그런데 그보다 먼저 케인즈가 세이의 販路法則을 어떻게 解釋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부터 알아 보기로 한다.

우리가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케인즈는 세이의 販路法則을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의 生産物을 購買하는 것은 生産物이다」라는 式으로, 즉 「 $xW-yW'$ 은  $xW-yW'$ 으로 還元시킬 수 있다」는 式으로 理解하고 있지 않다는 事實이다. 그는 세이의 販路法則을, 「生産物의 生産費는 항상 需要로부터 結果되는 販賣代金에 의해서 補償되게 된다」<sup>(51)</sup>라고 定式化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케인즈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만 適用되는 세이의 販路法則을 變形해 가지고 그것을 그의 所謂「貨幣經濟」 즉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適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즉 그에 의하면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適用된 세이의 販路法則이란,  $G \equiv E \equiv G'$ 을 意味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S \equiv I$ 라고도 定式化되고 있다. 이것을 케인즈는 다음과 같이 表示하고 있다.

$$Z_i = Y_i = A_i + B_i = C_i + S_i \quad (Z_i = X_i - U_i)$$

$$D_i = C_i + I_i$$

$$Z_i \equiv D_i \quad \text{또는} \quad S_i \equiv I_i$$

이와 같이 케인즈에 의해서 「貨幣經濟」 즉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適用된 세이의 販路法則은 單純商品生産  $W-G-W'$ 에 適用된 「原版 세이의 販路法則」이 存在하고 있는 한 必然的으로 誘導되어야 할 그러한 運命에 있는 命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마르크스에 의해서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으로부터 貨幣를 除外해 버린 價値流通에 관한 세이의 販路法則 ( $C_2 = V_1 + M_1$ )이 이미 誘導되고 있는 狀態에 있었으므로, 貨幣資本=有效需要=貨幣購買力( $G \equiv E$ )이 適用된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의 세이의 販路法則  $G \equiv E \equiv G'$ 이 明確한 形態로서 登場

(51) J.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p. 20.

할 時期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다름아닌 바로 케인즈가 成就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한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m}{A} \dots P \dots W' - G'$ 에 適用된 세이의 販路法則  $G \equiv E \equiv G'$ 에 관해서는, 리카아도가 『原理』(3版)에서 「機械」를 論하고 있는 場所에서 이미 示唆하고 있었던 데 대해서, 마르크스는 그러한 定式( $G \equiv E \equiv G'$ )에 관해서 전혀 想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들이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m}{A} \dots P \dots W' - G'$ 에 適用된 세이의 販路法則을 케인즈는 「部分的 恐慌論」이라고 排擊하고 있지를 않고 그것을 「完全雇傭理論」이라고 함으로써 排擊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케인즈의 立言은 완전히 핀트가 틀린 것이지만, 이 완전히 핀트가 틀린 케인즈의 立言이 세이의 販路法則의 運命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케인즈는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m}{A} \dots P \dots W' - G'$ 에 適用된 세이의 販路法則  $G \equiv E \equiv G'$ 은 「完全雇傭理論」에 속하고 있으므로 「抽象的」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自己가 만들어 낸 有效需要의 原理는 「不完全雇傭理論」이라고 하여 「具體的」一般理論에 속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一般理論』의 劈頭에서 展開되고 있는 所謂 「有效需要의 原理」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그것을 케인즈는  $D_i = Z_i, I_i = S_i$ 로서 規定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의 記號로 表示해 보면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m}{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G = E = G'$ 이 成立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部分的 恐慌論」에 속하고 있으며, 세이의 販路法則  $G \equiv E \equiv G'$ 과 大同小異하며 兩者 사이에는 本質的 差異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케인즈 自身은 兩者의 差異를 「完全雇傭理論 對 不完全雇傭理論」이라는 드라마틱한 言辭를 使用해서 力說強調하고 있으며, 세이의 販路法則  $G \equiv E \equiv G'$  즉 「完全雇傭理論」은 리카아도의인 데 대해서 自己自身の 有效需要의 原理  $G = E = G'$  즉 「不完全雇傭理論」은 맬더스의이라고 하고 있다. 事實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곧 우리의 見解이다. 結論부터 먼저 말한다면, 세이의 販路法則  $G \equiv E \equiv G'$ 이나 有效需要의 原理  $G = E = G'$ 이나, 둘 다 리카아도의 特히 마르크스의이며, 둘 다 部分的 恐慌論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事實을 證明하기 위해서 有效需要의 原理가 어떠한 基礎理論으로부터 誘導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 보아야 되겠다. 세이의 販路法則  $G \equiv E \equiv G'$ 이 投下勞動價值論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앞에서 이미 본 바가 있다. 그러면 有效需要의 原理는 어떠한 價值論에 立脚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私見에 의하면, 有效需要의 原理  $G = E = G'$ 도 스스로 意識하지 않은 채, 投下勞動價值論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케인즈의 有效需要의 原理  $G = E = G'$ 에 있어서는



$B_t$ 가  $X_t$ 에 대한 「有効需要=貨幣購買力」으로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케인즈는 다음과 같이 해서 有効需要의 原理를 說明하고 있기 때문이다.

$$Z_t = Y_t = A_t + B_t = C_t + S_t \quad (Z_t = X_t - U_t)$$

$$D_t = C_t + I_t$$

$$D_t = Z_t \quad \text{또는} \quad I_t = S_t$$

이와 같은 理論展開方式은 投下勞動價値論에 立脚해서만 特히 마르크스式的 剩餘價値에 立脚해서만 誘導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케인즈는, 生産過程에서 生産되어서 아직 實物形態로서 있는  $B_t$ 가  $X_t$ 에 대한 「有効需要=貨幣購買力」으로 된다는 마르크스의 剩餘價値論(즉  $C_2 = V_1 + M_1$ 에 展開되고 있는 思考方式)을 그대로 取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이의 販路法則  $G \equiv E \equiv G'$ 의 中心命題인 「總需要額 $\equiv$ 總供給額」과 部分的 恐慌論이, 케인즈의 有効需要의 原理  $G = E = G'$ 에 있어서도, 그대로 成立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케인즈는 有効需要의 原理가 「不完全雇傭理論」이라고 말하고 있다. 「不完全雇傭理論」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理論인가. 不況時 需要를 미리 豫測하고 그 需要만큼의 供給을 計算하는 말하자면 慎重主義에 立脚한 生産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세이의 販路法則은 「生産을 위한 生産」「蓄積을 위한 蓄積」이라는 資本主義 固有의 無政府的 生産을 前提로 하고 있다. 그러나 一般的인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관한 理論을 展開하려고 한다면, 역시 세이의 販路法則이 立脚하고 있는 「生産을 위한 生産」(「需要만큼의 生産」이 아니라) 「無政府的 生産」을 前提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케인즈의 有効需要의 原理 乃至 「不完全雇傭理論」을, 不況時에 있어서의 萎縮된 企業家の 戰戰兢兢하는 生産態度를 生産一般의 態度로서 擴大시켜보는 偏向된 理論이라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케인즈가 試圖한 대로, 「完全雇傭理論」이나 또는 「不完全雇傭理論」이나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核心을 逸脫한 것이라고 보고, 역시 리카아도, 세이, 시스몽디, 맬더스 등이 그리고 마르크스와 그 後繼者들이 따진 바와 같이 「一般的 恐慌論」이나 또는 部分的 恐慌論이냐 하는 것을 따져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말해 두어야 할 것은, 케인즈는 그가 意圖한 바와는 正反對로, 그의 理論은 그가 憎惡해 마지 않았던 리카아도, 마르크스의 直系에 속하는 理論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는 리카아도, 마르크스의 弟子이며, 맬더스의 弟子가 아니라는 것을 關說해 두기로 하자.

케인즈는, 세이, 리카아도, 마르크스 등과 마찬가지로, 항상 「總供給額=總需要額」이라는 「均衡」(그것이 비록 「不完全雇傭均衡」이라고 하더라도)의 世界에 단 安住할 줄 안다. 그

가 맬더스의이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홉슨이 말한 바와 같이「供給過剩은貯蓄의物質의表現」<sup>(52)</sup>이라는 말을 함으로써「利潤增加」(ΔB)는且置하고서라도 우선「貯蓄」乃至「過剩貯蓄」이「過剩生産」을意味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 한마디쯤言及을 했어야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케인즈에 있어서는過剩生産에 관한積極的인言及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물론 케인즈도過剩生産에 관해서 확실히言及은 하고 있다.「호트리는流動資本의變化 즉販賣되지 않은財貨의在庫增加分(또는減少分)에 커다란重要性을賦與하고, 이러한變化를除外한投資概念規定의可能性을示唆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貯蓄이投資를超過하는部分은販賣되지 않은財貨의在庫增加分 즉流動資本의增加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호트리는 이것이強調되어야 할要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나를納得시킬 수가 없다.」「나는有効需要의全體的變化를強調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有効需要의變化 가운데의販賣되지 않은在庫의增減을反映하는部分만을強調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sup>(53)</sup> 以上の引用文章에 의해서 보면, 케인즈는投資概念 속에販賣되지 않은在庫增加分을包含시키고 있는 것이分明하다. 즉 케인즈의投資概念 속에는投資需要와過剩生産의2個要素가包含되고 있는 셈이 된다.

즉 케인즈는過剩生産을必然的 本質的 性格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偶然的 非本質的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케인즈에 있어서는「均衡」만이「合法則的」인 것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케인즈에 있어서의 그「均衡」은 곧 마르크스式的 投下勞動價値論에立脚하고 있는 것이다.

클라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國民所得의基本的인定義는消費 플러스投資 플러스意圖되지 않은在庫品の累積 이것이國民所得이다.」「貯蓄과投資의差는意圖되지 않은在庫品の累積과 같다.」<sup>(54)</sup> 여기에 있어서도 온갖分析手段과精力을 기울여서證明해야 할對象(「過剩生産」)이當然한現象인 것처럼簡單하게 너무도簡單하게「前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센도在庫商品을投資 속에包含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實質投資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① 固定資本財(工場, 工場施設, 住宅用家屋, 公共建築物) ② 在庫品の純增加量(原料品, 半製品, 完製品) 등을包含하고 있다.」<sup>(55)</sup>

이와 같이投資概念 속에投資需要와過剩生産物을包含시켜 놓으면貯蓄은自動的으로 항상投資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케인즈의有効需要의原理는,實質上에 있

(52) J.A. Hobson, *The Evolution of Modern Capitalism*, 1926, p. 286.

(53) J.M. Keynes, *op. cit.*, pp. 75-76.

(54) L.R. Klein, *The Keynesian Revolution*, 1947, p. 114.

(55) A.H. Hansen, *Fiscal Policy and Business Cycles*, 1941, p. 48.

어, 세이의 販路法則과 區別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케인즈는 물론 投下勞動價値論에 立脚해서 有效需要의 原理를 主張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는 價値論에 대한 配慮는 거의 存在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有效需要의 原理는 그에 있어 어떻게 誘導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私見에 의하면, 有效需要의 原理는, 케인즈에 의해서, 하나의 「模型」으로 提示되었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세이의 販路法則과 有效需要의 原理라는 2個의 「模型」을 作成해서 거기에다가 各 各 「完全雇傭理論」「不完全雇傭理論」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模型」의 特色은 그것이 알파로서의 價値論으로부터 因果的 說明方法에 의해서 誘導되지를 않고 單刀直入의 으로 「設定」되고 「前提」된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케인즈는, 세이의 販路法則과 그와 對立되고 있는 有效需要의 原理를 『一般理論』의 劈頭에서 힘들이지 않고 그냥 「設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케인즈의 意思와는 반대로, 그가 憎惡해 마지 않았던 마르크스式的 投下勞動價値論에 立脚하고 있는 「模型」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sup>(56)</sup>

## 2. 헤로드

그러면 「模型」으로서의 有效需要의 原理의 特色은 어디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特色을 「均衡」이 「合法則的」이라고 想定하고 있는 그 根本的 態度에서 찾아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模型」으로서의 有效需要의 原理로부터 誘導되고 있는 「模型」으로서의 景氣循環理論을 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便宜上 헤로드의 景氣循環理論만을 보기로 하겠다. 헤로드는 有效需要의 原理인  $D=Z$ 로부터 誘導되고 있는  $I=S(Y)$ 를 基礎로 삼고 있다.  $I=S(Y)$ 는 물론  $D=Z$  또는  $I=S$ 와 그대로 一致되는 것이 아니고 消費函數 乃至 貯蓄函數라는 하나의 制約이 거기에 添加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이 「投資가 所得의 크기를 決定한다」는  $I=S(Y)$ 도 「模型」임에는 아무런 變化도 있을 수 없다.

헤로드는 周知하는 바

$$GC=s$$

$$G_n C_r =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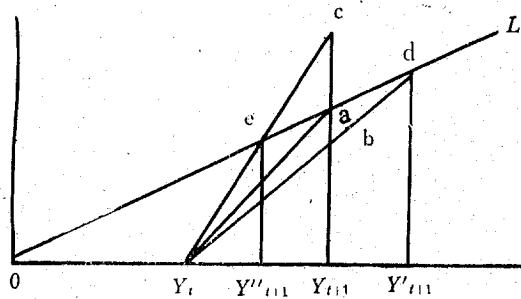
$$G_n C_r = s \text{ or } \approx s$$

(56) 맬더스는 「좋은 分配」(better distribution) 또는 「有效的인 分配」(effective distribution)를 통해서 消費  $C$ 를 增大시킬 것을 主張하고 있는 데 대해서, 케인즈는 投資  $I$ 를 增大시킴으로써 所得을 增加시키는 方途(乘數理論)를 講究하고 있다(T.R. Malthus, *op. cit.*, p. 362, p. 365).

等 3種의 成長方程式을 設定해 놓고 그의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注意해야 할 것은

$$G = \frac{Y_{t+1} - Y_t}{Y_{t+1}} \quad C = \frac{I_{t+1}}{Y_{t+1} - Y_t} \quad s = \frac{S_{t+1}}{Y_{t+1}}$$

가 成立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G = \frac{Y_{t+1} - Y_t}{Y_t}$ 가 되지 않고  $G = \frac{Y_{t+1} - Y_t}{Y_{t+1}}$ 가 되는가 하면,  $C$ 가  $C = \frac{I_t}{Y_{t+1} - Y_t}$ 가 되지 않고  $C = \frac{I_{t+1}}{Y_{t+1} - Y_t}$ 가 되기 때문이다. 즉 資本係數  $C$ 는 加速度原理(所得→投資)를 表示하고 있으며, 分母인  $\Delta Y$ 가 「時間的으로 先」을 表示하고 있는 데 대해서, 分子인  $I$ 는 「時間的으로 後」를 表示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表示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림 1>

<그림 1>에서  $LS$ 가 長期貯蓄曲線을 表示하고 있다고 하면 資本係數  $C$ 는  $\frac{Y_{t+1} a}{\Delta Y(Y_{t+1} - Y_t)}$ 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必要資本係數  $C_r$ 은  $Y_{t+1} - Y_t$ 에 對應하고 있는 技術的으로 理想的인 크기의 新投資  $I$ 를  $Y_{t+1} - Y_t$ 로 除한 값인 것이다. 그런데 헤로드에 의하면  $Y_{t+1} - Y_t$ 에 對應하고 있는 現實的인 投資는 반드시  $Y_{t+1} - Y_t$ 에 對應하고 있는 必要投資와 같다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림에 의해서 表示해 본다면 <그림 1>에서 必要投資가  $Y_{t+1} b$ 도 될 수 있고  $Y_{t+1} c$ 도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Y_{t+1} - Y_t$ 에 對應하고 있는 必要投資가  $Y_{t+1} f$ 일 경우에는  $Y'_{t+1} - Y_t$ 에 對應하고 있는 必要投資는  $Y'_{t+1} d$ 가 되며 이것은 또 現實投資와 一致되고 있다는 것을 그림은 表示하고 있다. 그럴 때  $G_w C_r = s$ 가 成立되는데 이 경우

$$G_w = \frac{Y'_{t+1} - Y_t}{Y'_{t+1}} \quad C_r = \frac{Y'_{t+1} d}{Y'_{t+1} - Y_t} \quad s = \frac{Y'_{t+1} d}{Y'_{t+1}}$$

가 되고 있다는 것을 注意해 주기를 바란다.  $Y_{t+1} - Y_t$ 에 對應하고 있는 必要投資가  $Y_{t+1} c$ 일 경우에도  $G_w C_r = s$ 가 成立되며 이 경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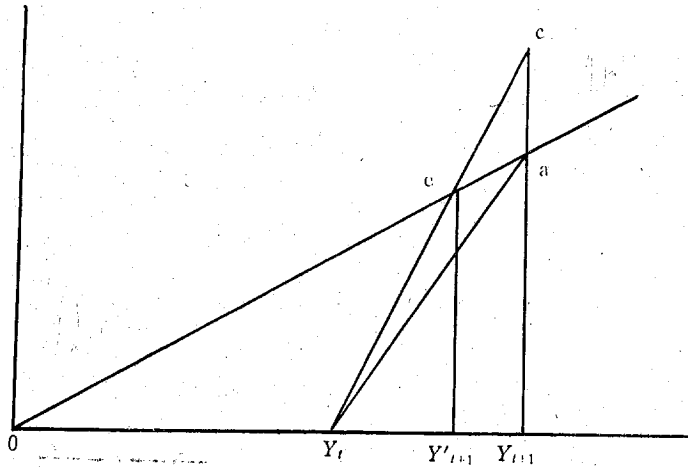
$$G_w = \frac{Y''_{t+1} - Y_t}{Y''_{t+1}} \quad C_r = \frac{Y'_{t+1} e}{Y''_{t+1} - Y_t} \quad s = \frac{Y''_{t+1} e}{Y''_{t+1}}$$

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경우  $G > G_w$ 가 될 때에는  $C < C_r$ 이 되고 반대로  $G < G_w$ 가 될 때에는  $C > C_r$ 이 된다는 것을 注意해 주기를 바란다.

다음에 「人口의 增加와 技術進歩에 의해서 可能하게 되는 進歩率」 즉 完全雇傭成長率  $G_n$ 을 提示하고 있다. 그런데 이  $G_n$ 은 企業者에게 가장 바람직한 完全利用成長率  $G_w$ 와는 아무런 直接的인 關係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G_n$ 은 人口增加率을  $x$ , 技術進歩率을  $y$ 라고 한다면  $G_n = x + y$ 로 表示된다.

그러면 해로드는 어떻게 景氣變動을 說明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그는  $G$ 와  $G_w$ 와의 關係에 의해서 景氣變動을 說明하고 있다.

지금  $G > G_w$ 가 成立되고 있다고 한다. 그럴 때에는,  $C < C_r$ 이 成立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림 2>에 의해서 說明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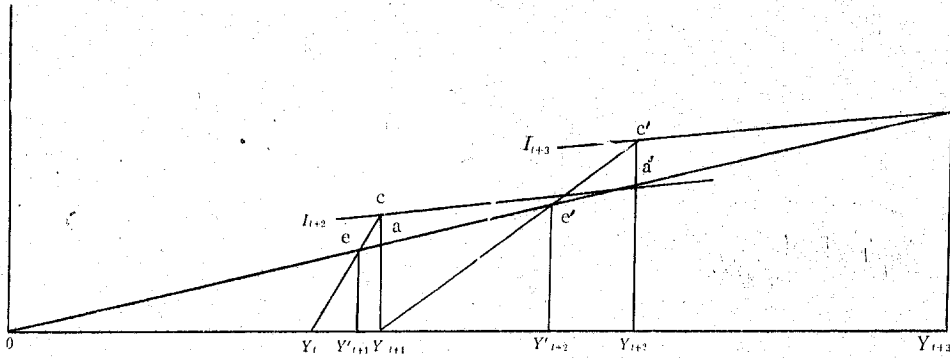
<그림 2>

그러면

$$\begin{aligned} & \frac{Y_{t+1} - Y_t}{Y_{t+1}} - \frac{Y'_{t+1} - Y_t}{Y'_{t+1}} \\ &= \frac{Y_{t+1}Y'_{t+1} - Y_tY'_{t+1} - Y_{t+1}Y_t + Y_tY_{t+1}}{Y_{t+1}Y'_{t+1}} \\ &= \frac{Y_t(Y_{t+1} - Y'_{t+1})}{Y_{t+1}Y'_{t+1}} > 0 \quad (\because Y_{t+1} > Y'_{t+1}) \end{aligned}$$

가 되므로,  $G > G_w$ 가 成立될 때에는  $G = \frac{Y_{t+1} - Y_t}{Y_{t+1}}$ ,  $G_w = \frac{Y'_{t+1} - Y_t}{Y'_{t+1}}$ 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C < C_1$ 이 成立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 2>에서  $Y_{t+1} - Y_t$ 에 對應하고 있는 現實投資  $Y_{t+1} a$ 는  $Y_{t+1} - Y_t$ 에 對應하는 必要投資  $Y_{t+1} c$ 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ac$ 만큼 投資不足現象이 發生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企業家들은 投資을 더욱 增大시키려고 意圖하게 될 것이다. 그 結果  $t+2$ 期の 所得  $Y_{t+2}$ 가 發生되게 되는 것이다(<그림 3>). 이 경우 投資增大와 所得增大 사이에 乘數理論이



<그림 3>

成立되고 있다는 것도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投資增大」는  $Y_{t+1} - Y_t$ 에 對應하고 있는 投資不足  $ac$ 와 같은 크기의 것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로드의 景氣循環理論은 乘數理論과 加速度原理의 2個理論을 基礎로 하고 있으며, 이 2個理論에 立脚하는 擴大運動을 그는 「進歩的인 經濟體制의 不安定性」(instability of an advancing system)<sup>(57)</sup>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遠心力이 作用하고 있어 그 進歩의 必要한 線으로부터 經濟體制를 더욱 먼 곳으로 離脫시키게 된다」<sup>(58)</sup>고 그는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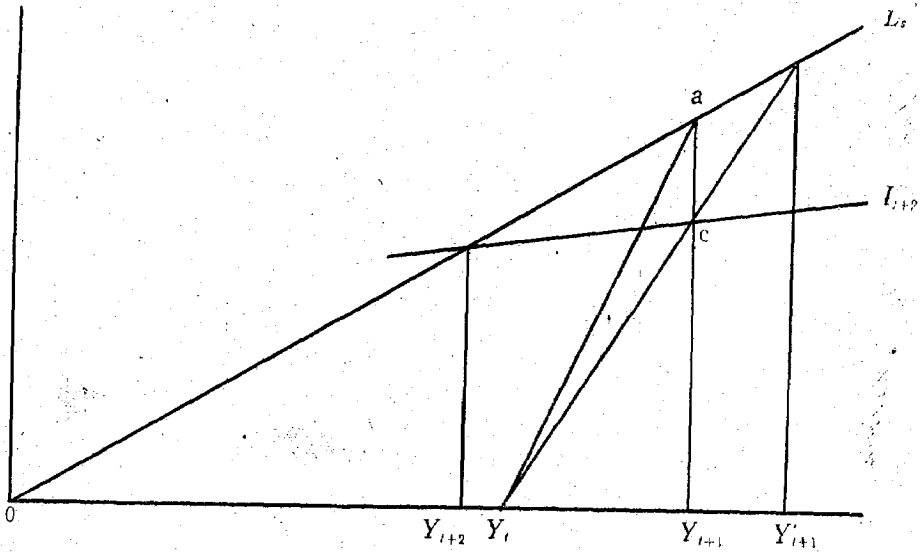
그러면 景氣의 下方으로의 轉換은 어떻게 해서 發生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가. 그는 그것을 두가지 類型으로 分類해서 「完全雇傭에 도달한 뒤에 있어서의 下降」과 「完全雇傭에 도달하기 以前에 있어서의 下降」으로 區分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前者의 경우만을 보기로 하자.

지금  $G_n < G_w$ 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現實投資 < 必要投資」에 의해서 擴大運動을 일으킨  $G$ 는 계속  $G > G_w$ 의 狀態를 維持해 가면서, 해로드의 用語로 表現한다면 「不安定性」 狀態를 維持해 가면서, 계속 擴大運動을 維持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注意해야 할 事項은, 擴大運動過程에 있는  $G$ 와 그를 誘導해 나가고 있는  $G_w$ 는, 둘 다 不完全雇傭成長率에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G$ 와 그를 誘導하고 있

(57) R.F. Harrod, *Towards a Dynamic Economics*, 1956, p. 85.

(58) *Ibid.*, p. 86.

는  $G_w$ 가 擴大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G$ 와 그를 誘導하고 있었던  $G_w$ 가 不完全雇傭成長 狀態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G$ 가 드디어 完全雇傭狀態에 도달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事態가 벌어지게 될까. <그림 4>에 있어  $Y_t$ 가 完全雇傭狀態의 所得을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增加된 人口를 모두 雇傭하고 技術進歩에 의한 勞動 生産性向上도 이루어짐으로써 最大限의 完全雇傭成長率 즉  $G_n = x + y$ 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것을  $Y_{t+1}$ 로서 表示하기로 한다. 그럴 때에는  $G = G_n$ 이 되게 되고 또 前提에 의해서  $G_n < G_w$ 가 成立되고 있다고 했으므로,  $G_w$ 를 表示하고 있는  $Y'_{t+1}$ 는  $G = G_n$ 을 表示하고 있는  $Y_{t+1}$ 의 右側에 있게 된다는 것은 더 말할 必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4>

그리하여  $Y_{t+1} - Y_t$ 에 對應하고 있는 必要投資는  $Y_{t+1} c$ 가 되게 되며,  $Y_{t+1} - Y_t$ 에 對應하고 있는 現實投資  $Y_{t+1} a$ 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즉 이 點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顯示했던 投資不足의 現象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반대로 過剩投資의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t+2$ 期에 있어서는 現實投資는 작아지게 되고 所得도  $Y_{t+2}$ 로 減少되는 現象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해로드는 完全雇傭이 「擴大再生産→縮小再生産」의 原因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以上에서 본 해로드의 景氣循環理論을 檢討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t$ 期에 있어서는 「總需要額=總供給額=所得」,  $t+1$ 期에 있어서는 그리고  $t+2$ 期에 있어서는 「總需要額=總供給額=所得」 즉 「均衡→均衡」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② 따라서 每期에 있어서 部分的 過剩生産은 發生될 수가 있어도 一般的 過剩生産은 전혀 發生되지 않는 것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③ 景氣轉換이라는 것도 一般的 過剩生産에 起因하는 擴大再生産으로부터 縮小再生産에로의 轉換이 아니라 完全雇傭의 壁에 부딪쳐 挫折되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해로드의 景氣循環理論이 有效需要의 原理라는 設定된 「模型」에 立脚함으로써 自己도 모르는 새 投下勞動價値論을 採擇하여  $G_t = E_t = G'_t$ 이 되게 된 結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言及해 둘 必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